



개념 쑥탁

정답과 해설

1강_ 화법의 요소와 성격, 말하기와 듣기 방법



기출~ 탁!

p.7

<2017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 ①

(해설) 강연자는 '꽃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재스민 차 드셔본 분은요?', '혹시 꽃을 넣은 전통 음식을 먹어 본 학생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볼까요?'라고 청중들에게 질문하며 그들의 경험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강연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오답의 정체]

- ② : 강연자는 강연 중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 않다.
- ③ : 강연자는 식용 꽃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④ : 강연자는 강연을 시작할 때 '요리 연구가 ○○○입니다.'라고 소개했을 뿐, 자신의 과거 경력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 ⑤ : 강연자는 자신의 강연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 않다.

2.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②

(해설) 강연자는 '철쭉꽃은 화단 재료로 쓰이는 진달래꽃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독성이 있으니까요.'라고 말하며 철쭉이 진달래꽃과 달리 독성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했을 뿐, 이 둘 사이의 형태적 차이점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에서 강연을 들은 학생은 자신이 들은 내용과 사실의 부합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 않고 단지 궁금한 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의 정체]

- ① : ㉠에서 궁금해 하던 두 가지 내용에 대해 강연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다. 즉 ㉡에서 식용이 가능한 꽃의 목록과 이를 재료로 한 음식의 종류를 정리하고 있다.
- ③ : 강연자는 식용 꽃과 관련하여 학교 화단의 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강연을 들은 학생은 꽃에는 농약이나 오염 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강연의 내용을 화단의 꽃에 적용하고 있다.
- ④ : 동아리 행사를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해 걱정하고 있던 학생이 강연의 내용을 활용하여 '꽃을 재료로 한 음식 만들기'라는 해결책을 떠올렸다.
- ⑤ : ㉡에서 학생은 꽃을 재료로 한 음식과 관련하여 꽃들을 식용 가능 범주와 식용 불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2016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

4. 의사소통 방식 파악하기

정답 ③

(해설) 진행자는 전문가의 발언 일부를 재진술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오답의 정체]

- ① :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사람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모셨다는 진행자의 첫 발언에서 대담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 진행자는 사람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는지, 사람책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 사람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을 하며 대담을 이어 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진행자의 물음에 전문가가 세 번째 발언에서 시립 도서관의 사람책들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 전문가의 두 번째 발언에서 '사람 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은 후 '사람책'의 뜻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이어질 내용 추리하기

정답 ②

(해설) 전문가의 발언 중 사람책 이용자들이 사람책과 직접 만나 상호 작용하며 궁금증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대담 내용 외의 질문을 하라는 진행자의 발언을 고려할 때 사람책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를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17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3. 필요한 정보 파악

정답 ⑤

(해설) 연설 마무리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연설 마지막엔 친구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학생 2의 네 번째 발언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무리 부분에서 활용할 비언어적 표현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의 정체]

- ① : 학생 1의 첫 번째 발언에서 '친구들의 특성을 감안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 학생 1의 첫 번째 발언에서 '연설 장소가 넓은 강당'이라는 점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근거와 그 제시 순서에 대해 논의해 보자.'라는 사회자의 두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 제시된 토의 내용 대부분이 연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 모색과 관련되어 있다. 즉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 찾기와 제시 순서 정하기,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들(보도 자료, 법 조항, 통계 자료 등)에 대한 언급 등이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4. 말하기 과정 분석

정답 ⑤

(해설)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좋은 근거라고 생각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3이 학생 2의 발언에 대해 경각심 유발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의 정체]

- ① : 학생 1은 '연설 주제에 적합한 시를 낭송'하여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자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도움이 되겠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 ② : 학생 2는 학생 1이 제안한 '인기 가요를 틀어 친구들의 주의를 끄는' 방식에 대해 다른 친구들이 여러 번 쓴 방법이어서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 ③ : 학생 3은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자는 학생 2의 제안에 대해 연설 주제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 ④ : 학생 2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자.'는 학생 1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5. 중요한 내용 파악

정답 ④

(해설) 학생들의 발언 중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자가 늘어날수록 가해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른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를 합의된 토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오답의 정체]

- ① : 학생 2의 세 번째 발언 내용으로 학생 1, 학생 3 모두 동의하



고 있다.

- ② : 학생 3의 첫 번째 발언 내용으로 학생 1, 학생 2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③ : 학생 1의 세 번째 발언 내용으로 학생 2, 학생 3 모두 동의하고 있다.
- ⑤ : 학생 3의 두 번째 발언 내용으로 학생 1, 학생 2 모두 동의하고 있다.



기억하라,
쑥.탁!!

- 1. 구두 언어
- 2. 반언어, 비언어
- 3. 맥락
- 4. 공감적

2강_ 화법의 과정, 담화 유형별 특징



기출~ 탁!

p.16

<2016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

3. 말하기 계획 평가하기

정답 ⑤

(해설) 청중이 동물원 폐쇄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 보고자 함은 '연설 의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기에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은 '연설'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연설자가 연설 계획 단계에서 고려했을 사항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연설의 전략 평가하기

정답 ⑤

(해설) [C]에서 연설자가 피터 싱어 교수의 책 『동물 해방』에 일 부인 '어떤 존재들이 ~ 대상이 되어야 한다.'를 인용하여, 동물은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라는 도덕적 관점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5.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③

(해설) 3문단에서 연설자는 예상되는 반론으로 멸종 보호종의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멸종 보호종의 보호에 대해 동물 보호 센터 운영을 들어 반박하고 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물원 폐쇄에 반대하는 청중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다.

<2017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3. 중요한 내용 파악

정답 ⑤

(해설) 이 문항은 학생들 간의 토의에서 핵심 내용인 '발표와 질의응답', '자유 토의'라는 두 가지 방안의 내용 파악 여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학생들은 내용이 많고 어려운 책을 주어진 시간 안에 읽어야 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방안을 내었다. '발표와 질의응답'은 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 내용을 발표하고 나머지는 청중이 되어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이고, '자유 토의'는 구성원들이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읽어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이다. 두 형식에서 구성원들은 토의 시간 이전에 책의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이 참여자들이 토의 이전, 즉 사전에 모여서 책을 함께 읽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답의 정체]

① : '발표와 질의응답'은 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 내용을 발표하고 나머지는 청중이 되어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이므로, 모임마다 주도적 역할을 하는 특정인이 사전에 결정될 것이다.

- ② : '자유 토의'에서는 준비 과정에서 따로 주도자가 결정되지 않으므로 각 참여자의 역할이 같다고 할 수 있다.
- ③ : '발표와 질의응답', '자유 토의' 모두 참여자들이 의견을 서로 교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④ : '발표와 질의응답', '자유 토의' 모두 책의 일부 분량을 정해서 읽어 와야 하므로 책에서 다룰 분량이 정해져 있다.

4. 말하기 방식 추론

정답 ①

(해설) 이 문항은 실제 토의에서 사용된 말하기 방식의 성격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A]와 [B]는 토의에서 학생들이 한 발화이다. 이것은 이 토의의 주요 화제라 할 수 있는 '발표와 질의응답', '자유 토의'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말하고 있다. [A]에서는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의 단점을 언급한 후, '자유 토의 방식'의 장점을 언급하여 '자유 토의 방식'의 장점을 부각하는 식의 말하기를 하고 있다.

[오답의 정체]

- ② : [A]에서는 특정 방안의 단점과 다른 방안의 장점이 언급될 뿐, 특정 방안의 문제 해결 방안 및 다른 방안의 문제점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 ③ : [A]에서는 특정 방안의 단점과 다른 방안의 장점이 대비되어 언급되고 있다. 특정 방안의 장점을 다른 방안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④ : [B]는 두 방안 모두 개인의 준비가 미흡하면 모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 방안의 한계와 의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 ⑤ : [B]는 두 방안 모두의 한계 혹은 약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방안의 장단점을 언급한 후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5. 말하기 효과 평가

정답 ②

(해설) 이 문항은 '학생 1'의 마무리 발언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말하기 과정 및 효과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학생 1'은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을 채택하자고 하며 그 문제점은 차츰 개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즉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그의 의견에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의 정체]

- ① : 해당 부분은 두 방안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 ③ : 두 방안 중하나로 의견을 모으고 있지, 제삼의 방안을 절충안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 ④ : 대부분의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특정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소수 의견 존중을 전제로 특정 방안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 ⑤ : 학생들의 의견이 오간 것을 토대로 특정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다.

<2016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

4. 발표 전 준비과정 파악

정답 ③

(해설) 학생 발표의 중심 화제라고 볼 수 있는 드론 촬영의 장점이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 항공 촬영과의 비교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드론 촬영의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일반 항공 촬영의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발표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의 정체]

① 발표 첫 부분에서 '실물 드론을 보여 주며' 부분에서 청중의 관심

- 을 유도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두 번째 문단 '두 개의 영상을 보여 준 후'에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세 번째 문단에서 청중들이 함께 공유했던 '신입생 입학식'의 경험을 환기하여 내용 이해를 돕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두 번째 문단 첫 부분에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들은 후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드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발표 내용을 조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중의 평가 양상 파악 정답 ②
(해설) 두 번째 문단의 '드론 촬영은 ~ 일반 항공 촬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자면'으로 보아, 드론 촬영의 특징을 항공 촬영의 특징과 비교하여 중심내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의 정체]**
- ① : 드론 촬영 기술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 드론 촬영에 관련된 정보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설명하고 있다.
 - ④ : 드론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은 설명하였지만,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 ⑤ : 드론 촬영의 절차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억하라,
쑥.탁!!

1. 계획하기, 표현하기
2. 협력, 양
3. 토의
4. 매체

3강_ 작문의 요소와 성격, 작문의 과정(1)



기출~ 탁!

p.23

<2017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6. 글쓰기 전략 정답 ④
(해설) (나)에 제시된 '누나'의 조언과 '동생'의 반응을 토대로 조정 방안을 파악할 때, '누나'의 셋째 발화 중 "해설 대상인 초등학생과의 친화력도 중요할 거야."에 대해 '동생'이 "초등학생을 돌보았던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을 쓰면 되겠네."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친화력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활동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학급 내의 교우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조정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의 정체]**
- ① : '누나'의 첫째 발화부터 '동생'의 둘째 발화까지의 대화 내용을 참고할 때 적절하다.
 - ② : '누나'의 첫째 발화부터 '동생'의 넷째 발화까지 이어진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 ③ : '누나'의 셋째 발화부터 '동생'의 다섯째 발화까지 이어진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 ⑤ : '동생'의 다섯째 발화부터 '누나'의 마지막 발화까지 이어진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7.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 ⑤
(해설) (나)를 참고하면 '동생'이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으로 드러내려는 경험의 의의는 '초등학생과의 친화력'과 연결된다. ⑤의 내용 구체화 방안 중 '학습과 병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동생'이 언급한 경험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우미 활동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극복'은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을 통해 드러내려는 의의와도 연결되지 않으므로 ⑤는

구체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의 정체]**
- ①, ② :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으로 드러내려는 경험의 의의는 '향토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정도'와 연결된다. ①과 ②의 내용 구체화 방안 중 앞부분은 '동생'이 언급한 경험 내용에 부합하며, 뒷부분은 그러한 경험의 의의에 해당하므로 ①과 ②는 모두 적절한 구체화 방안이다. '보고서 발표 대회 참가'로 드러내려는 경험의 의의는 '설명 능력'과 연결된다.
 - ③ : 내용 구체화 방안 중 앞부분은 '동생'이 언급한 경험 내용에 부합하며, 뒷부분은 그러한 경험의 의의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구체화 방안이다.
 - ④ :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으로 드러내려는 경험의 의의는 '초등학생과의 친화력'과 연결된다. 내용 구체화 방안 중 앞부분은 '동생'이 언급한 경험 내용에 부합하며, 뒷부분은 그러한 경험의 의의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구체화 방안이다.

<2017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6.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 ④
(해설) <초고>는 <교지 편집부의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 발전을 위한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정책이나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오답의 정체]**
- ① : 3문단 마지막 문장의 '도심 곳곳의 고층 건물에서 층마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에 해당한다.
 - ② : 1문단 둘째 문장의 '농업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라는 내용은 ㉡에 해당한다.
 - ③ : 2문단과 3문단은 각각 농업에 도입될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환경 제어 기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에 해당한다.
 - ⑤ : 2문단의 둘째 문장과 셋째 문장, 3문단의 둘째 문장에서 현재 농업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2문단의 넷째 문장, 3문단의 둘째, 셋째 문장에서 그 문제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해결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에 해당한다.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 ③
(해설) <초고>에는 미래 식량 위기 예측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또한 [B]에서 식물 공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장소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간이 한정된 도시에서도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진술되어 있을 뿐, 식물 공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오답의 정체]**
- ① : [A]의 마지막 문장은 ㉠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며, 정보 통신 기술 도입의 긍정적 사례에 해당한다.
 - ② : ㉡의 현상은 모두 기상 상태와 관련된 피해인데, [A]의 둘째 문장에 '기상 상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생산량 예측과 조절을 어렵게 하는 원인임이 언급되어 있다.
 - ④ : [B]의 셋째 문장에서 언급한 '고층 건물 형태'는 ㉢의 실현 가능한 모습에 해당하는 식물 공장 형태이다.
 - ⑤ : [B]의 둘째 문장 중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빛의 양'은 ㉣의 요소에 해당하며, 이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시설'에 대해 언급하여 ㉤을 식물 공장의 시설에 대한 정보 제시에 활용하고 있다.

<2016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
 6. 글의 계획 반영 파악 정답 ④
(해설) '초고'에서는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경제의 출현과 확산 배경(㉡), 공유경제의 목적(㉢), 공유경제 출현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 공유경제에서 공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유형과 관련된 내용은 초고에 나와 있지 않다.



7.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해설] 초고에서는 공유경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B]의 자동차 공유 사례는 단독 품목에 대한 공유의 방식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고의 내용에서 제시된 단계를 품목별로 세분화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의 정체]

- ① : <표 1>은 세계 공유경제 규모의 성장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따라서 첫 번째 문단에서 공유경제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 ② : '신문 기사'의 도입부에는 비싼 운동 기구를 사 놓고도 그 비용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공유경제 출현 이전의 상황을 보여 주기에 적합하다.
- ③ : <표 2>는 사람들이 공유를 원하는 품목과 그 비율을 제시한 그래프로, 초고에서 제시된 공유의 대상과 관련 하여 그 품목을 추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⑤ : 초고에서 공유경제의 장점은 '공동의 이익 추구를 가능하게 한다'라고만 언급되어 있으므로, 공유경제의 장점을 열거한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8. 글의 수정 방안 평가

정답 ②

[해설] ⑥의 '으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맥락상 '접근권'은 '공동의 이익을 창출 하는 수단, 방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보함으로써'는 고칠 필요가 없다.



기억하라,
쑥.탁!!

- 1. 정보 전달, 설득
- 2. 주제
- 3. 계획하기
- 4. 내용 생성

4강_ 작문의 과정(2)



기출~ 탁!

p.30

<2017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8.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 ⑤

[해설] <본문>의 5문단은 시민 공원에 옮겨진 소나무가 잘 적응하고 있어 숲속 개방이 예정보다 앞당겨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5문단의 개요인 ㉔과 다르다.

[오답의 정체]

- ① : 1문단에 행사 시간과 장소 및 참석 대상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㉑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 2문단 마지막 문장에 ㉒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 3문단 앞부분에 ㉓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 4문단에 소나무가 기증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소나무 처리 문제의 해결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㉔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 ②

[해설] <보기>에 따르면 <부제>는 6문단에 제시된 학생회장의 말과 연결되면서 소나무 기증의 의의를 담고 있어야 한다. 학생회장의 말에 담긴 소나무 기증의 의의는 '나눔'과 '협력'이라는 건학 이념 실천 및 시민들의 심터 마련이다. 따라서 ②는 <보기>에 부합하는 부제이다.

[오답의 정체]

- ① : 학생회장의 말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며 소나무 기증의 의의로도 적절하지 않다.
- ③ : 학생회장의 말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므로 <보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④ :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이라는 표현은 학생회장의 말에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소나무 기증의 의의에 대한 내용은 학생회장의 말에 언급된 것과 다르다.
- ⑤ : <본문>의 마지막에 언급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학생회장의 말이 아니다.

10. 고쳐 쓰기의 적절성

정답 ③

[해설] ㉔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서술어인데, 앞 절의 주어인 '학생회와 동문회에서는'은 뒷 절의 주어이기도 하므로 문장에서 ㉔의 주체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③의 '점검 결과'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수정 방안'에 제시된 '시민 공원은'은 ㉔의 주체가 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므로 '수정 방안'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의 정체]

- ① : ㉔는 앞으로 개최될 행사에 대한 서술어인데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미래의 행위로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점검 결과'와 '수정 방안'은 모두 적절하다.
- ② : ㉔의 뒤에 이어지는 '신축'은 '건물 따위를 새로 만듦'이라는 의미로, ㉔는 '신축'의 의미 중 일부와 중복된다. 따라서 '점검 결과'와 '수정 방안'은 모두 적절하다.
- ④ : ㉔는 부정하는 말 앞에서 '다만', '오직'의 뜻으로 쓰이는 부사이므로 <본문>의 내용과 호응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검 결과'가 적절하며, '때마침'으로 수정할 경우 <본문>의 내용과 호응이 되므로 '수정 방안'도 적절하다.
- ⑤ : ㉔는 '-되다'와 '-어 지다'를 함께 사용하여 피동 표현이 중복되고 있다. 따라서 '점검 결과'와 '수정 방안'은 모두 적절하다.

<2016학년도 대수능 A형>

6.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 ⑤

[해설] ㉔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사례 제시'로 초고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초고의 3문단에서 한 국관광공사의 여행 정보를 활용한 앱과 지방 자치 단체의 주차장 정보를 활용한 앱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의 구체적 사례가 아니라 공공 데이터 활용에 따른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오답의 정체]

- ① : 1문단에 '앱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넘친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② : 1문단에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앱 개발 시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갱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③ : 2문단 앞부분에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에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④ : 2문단 마지막 부분에, 현재 정부가 개설한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는 800여 개 공공 기관에서 생성한 15,000여 건의 공공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7.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 ④

[해설]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필요한 실생활 관련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앱 개발 비용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내용은 [가]에 제시된 '공공 데이터 활용의 장점을 요약적으로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또 공공 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되면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앱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용은 [가]에 제시된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미칠 영향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의 정체]

- ① : 공공 데이터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공 데이터 활용의 장점이 요약적으로 진술되어 있지는 않다. 또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 ② : 학생의 초고에는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 아이디어가 부족하여 앱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③ :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으나 공공 데이터 활용의 장점을 요약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⑤ : 공공 데이터 활용의 장점이 요약적으로 진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언급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 고쳐 쓰기의 적절성

정답 ③

(해설) ㉠ ‘늘리다’는 문맥상 ‘수나 분량, 시간 따위가 본디보다 많이 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 데이터의 양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늘리고’는 문맥상 적절하게 사용된 단어이다. ‘늘이다’는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 혹은 ‘(주로 ‘선’과 관련된 말을 목적으로 하여) 선 따위를 연장하여 계속 굿다.’의 의미를 지닌 말이므로 ㉠을 ‘늘이고’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의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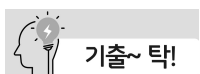
- ① : 문맥상 ㉠에는 주차장을 못 찾아 해매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제시되어야 한다. ‘해매다’가 ‘갈 바를 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에서 ~을 해매다.’와 같이 활용되므로 ㉠은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인 ‘에서’를 활용하여 ‘도심에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 ㉠의 앞부분에는 앱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앱 개발 시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갱신 문제로 인해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또 ㉠의 뒷부분에는 이제는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은 역접의 의미를 갖는 ‘그러나’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 ㉠의 주어는 ‘공공 기관이’이므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피동 표현인 ‘시행된’을 ‘시행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 ‘들이다’는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의 의미를 지닌 ‘들다’의 사동사이다. ‘들이다’가 사용될 경우 주어로는 행위의 주체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의 앞에 ‘비용이’라는 주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들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기억하라,
쑥.탁!!

- 1. 통일성
- 2. 형식, 내용
- 3. 삭제, 호응

5강_ 음운이란 /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p.37

<2015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A형>

11. 음절의 개념, 특성 파악

정답 ①

(해설) 우리말 음절의 초성 자리에는 자음이 둘 이상 오지 못한다. 제시된 자료 중 ‘끼’, ‘딸’의 ‘ㄱ’, ‘ㄷ’는 각각 된소리에 해당하는 하나의 자음이다. 참고로, 영어에 서는 ‘strike’처럼 초성에 해당하는 자리에 ‘str’과 같이 둘 이상의 자음이 오기도 한다.

[오답의 정체]

- ② : 중성 자리에는 모음이 오는 것을 네 유형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 ㄷ과 ㄹ 유형에서 중성 자리에는 자음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 ㄱ 유형은 초성과 중성이 없이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이며, ㄷ 유형은 초성이 없는 음절, ㄴ유형은 중성이 없는 음절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 네 유형 모두에 중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A형>

11.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 ①

(해설) ‘식물[싱물]’, ‘입는[읷는]’은 각각 ‘ㄱ, ㅂ, ㄷ’이 ‘ㅇ, ㄴ, ㄹ’ 앞에서 ‘ㅇ, ㅁ, ㄴ’으로 바뀐다. 이를 제시된 자음 분류표에서 살펴보면,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변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 사례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앞 자음의 조음 방식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변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013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 A형>

11. 국어의 단모음 체계 이해

정답 ②

(해설) ‘ㄱ’은 전설평순저모음, ‘개’는 전설평순중모음으로 둘은 ‘혀의 높이(입의 개폐)’에 의해서만 구분된다. 저모음은 입이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은 것으로 ‘개모음(開母音)’이라고도 하며, 중모음은 그보다 혀의 위치가 중간인 것으로 ‘반개모음(半開母音)’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개’를 발음할 때는 ‘개’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2014학년도 대수능 예비시행 A형>

11. 음운의 특징 파악

정답 ②

(해설) 이 문항은 국어의 음운 체계, 음운 규칙과 변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전단계로, 국어 음운의 특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추리해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ㄱ)은 국어 음절(‘발’)을 이루는 초성(ㅂ), 중성(ㅏ), 종성(ㄹ)이 음운이 바뀌는 것에 따라 서로 다른 단어(‘달’, ‘밭’, ‘밥’)로 실현되며, 이에 따라 의미도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에서 초성 ‘ㅂ’이 ‘ㄷ’, ‘ㅅ’ 등으로 바뀌에 따라(‘달’, ‘밭’) 다른 단어가 된다. (ㄴ)의 ‘눈’은 길게 발음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雪)’을 의미하며, 짧게 발음하면 ‘신체의 일부인 눈(眼)’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리의 길이도 음운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의 정체]

- ① : (ㄱ)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지만, (ㄴ)의 소리의 길이는 문자 표기로 나타내지 않는다.
- ③ : (ㄱ)과 (ㄴ)은 음운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라, 음운이 바뀌거나 장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의 의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 ④ : 자음의 경우 초성과 종성에 사용되며, 모음은 중성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위치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 (ㄱ)이나 (ㄴ)은 음운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감정의 차이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2015학년도 대수능 A형>

11.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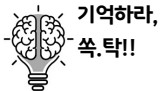
(해설) 이 문항은 모음의 변동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 뒤,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문항을 정확하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모음의 변동 유형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단모음, 이중 모음, 반모음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결합을 중심으로 모음의 변동 양상을 살펴보면, ㉠의 ‘살피



+ 어 → [살펴]에서는 'ㅣ + ㅓ → ㅕ'의 변동이 일어나 단모음 'ㅣ'와 단모음 'ㅓ'가 합쳐져 이중 모음 'ㅕ'로 변동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㉔의 '배워 + 어 → [배워]'에서 역시 'ㅓ + ㅓ → ㅕ'의 변동이 일어나는데, 단모음 'ㅓ'와 단모음 'ㅓ'가 합쳐져 이중 모음 'ㅕ'로 변동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으로 변동되는 유형인 ㉔에 해당하는 것은 ㉒과 ㉔이다.

[오답의 정체]

- ㉑ : '기 + 어 → [기여]'에서 모음의 변동 양상을 표현해 보면, 'ㅣ + ㅓ → ㅣ + ㅕ'로 나타난다. 즉, 어간의 단모음 'ㅣ'는 변동되지 않지만, 어미의 단모음 'ㅓ'는 이중 모음 'ㅕ'로 변동된다. 그런데 이때의 'ㅕ'는 반모음 'ㅣ[j]'와 단모음 'ㅓ'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기 때문에, ㉑의 모음 변동 양상은 'ㅣ + ㅓ → ㅣ + ㅣ[j] + ㅓ'로 표현할 수 있다. 즉, ㉑은 두 개의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 'ㅣ[j]'가 첨가된 유형에 해당한다.
- ㉔ : '나서 + 어 → [나서]'에서 모음의 변동 양상을 살펴보면 'ㅣ + ㅓ → ㅓ'로 나타나므로, ㉔은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는 유형에 해당한다.



- 1. 의미, 최소 대립쌍
- 2. 분절, 비분절
- 3. 장애
- 4. 이중 모음, 반모음

6강_ 음운 변동(1)_ 교체, 축약



p.43

<2014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A형>

11. 음운 현상 이해, 적용 **정답 ④**
(해설) 이 문항은 제시된 사례들의 정확한 발음을 파악하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단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제시된 8개의 사례는 각각 '부엌 [부억], 간[간], 옷[온], 빛[빔], 달[달], 섬[섬], 앞[압], 창[창]'으로 발음된다. 정답은 ④로, '밖'이 [박]으로, '밀'이 [밌]으로 발음되는 현상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 '부엌[부억]'을 통해 'ㄱ'이 음절 끝의 자음으로 발음될 수 있다는 점과 '옷[온]', '빛[빔]'을 통해 'ㄷ'이 음절 끝의 자음으로 발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밖 [박]', '밀[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사례로 적합하다.

[오답의 정체]

- ① : 제시된 사례 중에서 '부엌'은 [부억]으로 발음되어 음절 끝의 자음이 'ㄱ'에서 'ㄱ'으로 바뀌기 때문에 ①의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 ② : '부엌[부억]', '앞[압]'은 거센소리(ㄱ, ㅍ)일 때 음절 끝 자음이 바뀐 경우이고 '달', '섬', '창'은 예사소리(ㄴ, ㄹ, ㄹ)일 때 음절 끝 자음이 바뀌지 않은 경우이지만, '옷[온]', '빛[빔]'을 보면 예사소리(ㅅ, ㅈ)일 때에도 음절 끝 자음이 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②는 타당한 진술이 아니다.
- ③ : '옷[온]', '빛[빔]'을 통해 'ㄷ'으로도 바뀐 경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③은 타당한 진술이 아니다.
- ⑤ : 위의 사례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부억), ㄴ(간), ㄷ(옷, 빛), ㄹ(달), ㄹ(섬), ㄹ(앞), ㄹ(창)'이다. 따라서 ⑤은 타당하지 않다.

<2014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B형>

12.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 ①**
(해설) 이 문항은 표준 발음법 제13항과 제15항의 내용에 대해 '앞

앞이[아바피]'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이를 다른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우선 제13항에서는 '출발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 등과 같은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 앞이'의 '-이'는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이'는 [아피]로 발음해야 한다. 또한, 제15항에서는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 앞'은 [아ㅏㅏ]로 발음해야 한다. 즉, '앞 앞이'는 [아바피]로 발음해야 한다. 정답은 ①로, '무릎이야'에서 '이야'는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㉑)에 따라 [무르피야]로 발음하며, '무릎 아래'의 '아래'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5항(㉒)에 따라 [무르바래]로 발음한다.

[오답의 정체]

- ② : '서넛이나'와 '서넛에서'의 '이나'와 '에서' 모두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㉑)에 따라 [서넛키나]와 [서넛게서]로 발음한다.
- ③ : '걸으로'의 '으로'는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㉑)에 따라 [거트로]로 발음한다. '걸아가미'의 '아가미'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5항(㉒)에 따라 [거다가미]로 발음한다.
- ④ : '배꽃이'의 '이'는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㉑)에 따라 [배꼬치]로 발음한다. '배꽃 위'의 '위'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5항(㉒)에 따라 [배꼬뒤]로 발음한다.
- ⑤ : '빛에'와 '빛이며'의 '에'와 '이며' 모두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㉑)에 따라 [비제]와 [비지며]로 발음한다.

<2014학년도 대수능 A형>

11. 음운 현상 이해, 적용 **정답 ③**
(해설) 이 문항은 세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을 제시한 뒤, 각각에 대해 분석하고 다른 사례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된 음운 변동 현상은 각각 ㉑음절의 끝소리 규칙, ㉒된소리되기(경음화), ㉓거센소리되기(유기음화)이다. 정답은 ③으로, '따뜻하다'는 '따뜻 → [따뜨]'의 과정에서 ㉑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며, '따뜻하다 → [따뜨따다]'의 과정에서 ㉓거센소리되기(유기음화)가 일어난다.

[오답의 정체]

- ① : ㉑은 음절 종성의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바뀌는 변동이지만, ㉒은 음절 초성의 자음 중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변동이다.
- ② : ㉑에서 '앞 → [압]'의 사례에서는 거센소리가 예사소리로 바뀌었지만 다른 사례들에서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㉓은 거센소리로 변동되는 현상이지만, 거센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변동이 아니다.
- ④ : ㉒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현상이지만, ㉓은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동화 현상이 아니다.
- ⑤ : ㉓이 음운의 축약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㉒은 음운의 첨가에 속하지 않는다. 음운의 첨가는 원래 없던 소리가 추가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㉒은 음운의 수에는 변화 없이 교체만 이루어진다.

<2014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A형>

11.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 ④**
(해설) ㉓은 동화이다. 왜냐하면 조음 위치로 양순음이고 조음 방법으로 파열음인 'ㄴ'이 조음 위치로 치조음이고 조음 방법으로 비음(콧소리)인 'ㄹ'의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로 양순음이고 조음 방법으로 비음인 'ㄹ'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㉓에서 '뽕이 [뽕]으로 발음되는 것은 'ㄴ'이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은 채 뒤에 오는 'ㄹ'의 조음 방법과 같은 조음 방법으로 발음되어 'ㄹ'으로 변한 현상이다.

[오답의 정체]

- ① : ‘ㄱ’이 ‘ㄱ’으로 발음되는 것은 ‘ㄷ’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ㄱ’은 ‘ㄷ’과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화가 아니다.
- ② : ‘ㅎ’과 ‘ㄱ’이 결합하여 ‘ㅋ’으로 발음되는 것은 두 음운이 한 음운으로 합쳐져 줄어든 음운의 축약으로서 음운의 교체인 동화 현상이 아니다.
- ③ : ‘홀네(홀레)’는 우선 ‘ㅌ’이 탈락하고 앞에 있는 ‘ㄹ’의 영향을 받아 뒤의 ‘ㄴ’이 ‘ㄹ’로 발음된 것이다. 따라서 ‘ㄴ’이 ‘ㄹ’로 동화된 것은 ‘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 ⑤ : ‘남’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이 되었다는 것은 ‘ㄹㄷ’의 겹받침으로 발음한다는 뜻인데, 이는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발음이다. 음절 말에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는 것은 국어에서 볼가 능하기 때문이다. 설명 이것을 역지로 발음한다 해도 ‘널더라 [널더라]’와는 다른 발음이므로, 이 답지의 진술은 틀린 것이다.

<2016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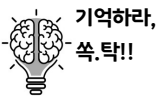
11.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 ②

(해설) 구개음화와 관련되는 표준 발음법 규정을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으로, 정답은 ②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개음화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구개음화의 형태론적 조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조사, 접미사 등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②의 ‘솔이나’는 명사 ‘솔’에 접속 조사 ‘이나’가 결합된 경우로, ‘솔이나’를 [소치나]로 발음하는 것은 ㉠에 따른 결과이다.

[오답의 정체]

- ① : ‘갈이’의 ‘-이’는 조사가 아니라 어근 ‘갈-’에 결합되는 부사 파생 접미사이다. 따라서 ‘갈이’를 [가치]로 발음하는 것은 ㉠이 아닌 ㉡에 따른 결과이다.
- ③ : ‘팔이다’의 ‘-이’는 접미사가 아니라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이다. 따라서 ‘팔이다’를 [파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이 아닌 ㉠에 따른 결과이다.
- ④ : ‘받히다’의 ‘-히-’는 피동 접미사이기 때문에, ‘받히다’를 [바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이 아닌 ㉡에 따른 결과이다.
- ⑤ : ‘붙이다’는 ‘붙-’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에서는 접미사 ‘-히-’가 결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붙이다’를 [부치다]로 발음하는 것을 ㉡에 따른 결과로 볼 수는 없다. 접미사 ‘-이-’가 결합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규정은 ㉠이다.



- 1. 교체, 축약
- 2. ㄱ, ㄴ, ㄷ, ㄹ, ㅁ, ㅂ, ㅇ
- 3. 비음화, 유음화
- 4. ㄷ, ㅌ, ㅊ, ㅋ, 미다지
- 5. 표준 발음

7강_ 음운 변동(2)_탈락, 첨가



p.48

<2014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A형>

11. 음운 현상 이해, 적용

정답 ④

(해설) 이 문항은 음운의 변동을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한 뒤,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음운의 변동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④로, ‘급행 열차’가 [그팽널차]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급행’의 ‘ㅂ’과 ‘ㅎ’이 하나의 음운 ‘ㅍ’으로 ‘축약(㉠)’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열’이 [널]로 발음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음운 ‘ㄴ’이 ‘첨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의 정체]

- ① : ‘가랑잎’이 [가랑닙]으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ㄴ’이 ‘첨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ㅍ’이 [ㅂ]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 ② : ‘값지다’가 [갑찌다]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먼저 ‘값’이 [갑]으로 발음되어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탈락(㉠)’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가 [찌]로 발음되는 과정은, ‘ㄱ, ㄷ, ㅂ’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ㅆ’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된소리되기’에 의한 것인데,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 ③ : ‘술하다’가 [수타다]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먼저 ‘술’의 ‘ㅌ’이 [ㄷ]으로 발음되는 ‘음 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또한, ‘ㄷ’과 ‘ㅎ’이 하나의 음운 ‘ㅌ’으로 ‘축약(㉠)’되는 현상도 관찰할 수 있다.
- ⑤ : ‘서른여덟’이 [서른녀덟]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우선 ‘ㄴ’이 ‘첨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덟’이 [덧]로 발음되어 겹받침 중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탈락(㉠)’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16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

11. 음운의 변동 이해

정답 ③

(해설) ㉠의 ‘입문하여[입문하여]’에서 ‘입문’이 [임문]으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화에 의한 것인데, ‘집문서’가 [짐문서]로, ‘만누이’가 [만누이]로 발음되는 것 역시 비음화에 의한 것이다.

[오답의 정체]

- ① : ㉡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것인데 ‘급하다’가 [그파다]로 발음되는 것은 거센소리되기 때문에 해당한다.
- ② : ㉠은 구개음화에 의한 것인데 ‘뽀대다’가 [뽀때다]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 때문에 해당한다.
- ④ : ㉡은 된소리되기 때문에 ‘꿈같이’가 [꿈가치]로 발음되는 것은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 ⑤ : ㉡은 거센소리되기 때문에 ‘한여름’이 [한녀름]으로 발음되는 것은 ‘ㄴ’ 첨가 현상에 해당한다.

<2014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B형>

11.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 ④

(해설) 이 문항은 한글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조항을 단계별로 도식화하여 제시한 후,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④이다. ‘장마비’는 ‘장마+비’의 합성어 구조로 1단계를 2단계를 만족한다. 그러나 그 발음은 [장마삐] 혹은 [장맘삐]이므로, 3-2단계가 아닌 3-1단계를 만족한다. 즉,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장맛비’로 적는 것은 맞지만, 단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오답의 정체]

- ① : ‘개살구’의 ‘개-’는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개살구’는 합성어가 아닌 파생어이다. 따라서 1단계를 만족하지 못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개살구’로 적어야 한다.
- ② : ‘총무과’는 ‘총무(總務)+과(課)’, 즉 ‘한자어+한자어’의 구조이므로 2단계를 만족하지 못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총무과’로 적어야 한다.
- ③ : ‘만두국’은 ‘만두(饅頭)+국’의 구조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며, 그 발음이 [만두국] 혹은 [만둔국]이므로, 3-1단계를 만족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만똥국’으로 적어야 한다.
- ⑤ : ‘허드렛일’은 ‘허드레+일’의 구조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며, 그 발음이 [허드렌일]이므로, 3-3단계를 만족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허드렛일’로 적어야 한다.



<2016학년도 대수능 A형>

11.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 ③

(해설) 두 종류의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유형별로 제시한 후, 각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의 '술도'는 /술도/ → 술도 → [숄도]로, '웃고름'은 /웃고름/ → 웃고름 → [올꼬름]으로 발음되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ㅅ→ㄷ'으로 된 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의 '닭'은 /닭/ → 닭 → [달]으로, '부엌문'은 /부엌문/ → 부엌문 → [부엌문]으로 발음되어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ㄱ'으로 바뀐 후 비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과 ㉡에 대해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고 설명한 ③은 적절하다. 또한 ③의 '깊다' 역시 /깊다/ → 깊다 → [깁따]로 발음되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ㅍ→ㅍ'이 되었으므로, 적절한 예이다.

[오답의 정체]

- ① : ㉠의 '옳지[올치]', '좁히다[조피다]'는 각각 'ㅎ+ㅅ → ㅅ', 'ㅍ+ㅎ → ㅍ'의 음운 축약 현상이 일어나지만, ㉡의 '끓어[꼬너]', '쌩이다[싸이다]'에서는 'ㅎ'이 탈락한다.
- ② : 앞서 살폈듯이, ㉠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또한, ㉡의 '읽지[익 씨]', '훑거나[훌거나]'에서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그렇지만, ㉠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④ : '겉모양'은 /겉모양/ → 겉모양 → [건모양]으로 발음되어 ㉠과 마찬가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를 거친다. 그러나 비음화는 조음 위치가 아니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현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 '앉고'는 /앉고/ → 안고 → [안꼬]로 발음되어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에서 역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만 ㉡에서는 겹받침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2017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13.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 ⑤

(해설) 이 문항은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음운 변동의 예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글+고 → [글꼬] → [글꼬]', '읽+지 → [일치]'의 음운 현상에서 '읽지'의 경우 'ㅎ'과 'ㅅ'이 'ㄷ'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났지만, '글고'의 경우 자음이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답의 정체]

- ① : '맑+네 → [막네] → [망네]', '값+도 → [갑도] → [갑또]'의 음운 현상에서는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자음은 탈락하는 현상(자음군 단순화)이 일어나고 있다. '맑'의 'ㄹ'에서 'ㄹ'이 탈락한 것, '값'의 'ㅅ'에서 'ㅅ'이 탈락한 것이 그것이다.
- ② : '맑+네 → [막네] → [망네]', '꽃+말 → [꼇말] → [꼇말]', '입+니 → [임니]'의 음운 현상에서는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비음화)이 일어나고 있다. '막'의 'ㄱ'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교체된 것, '꼇'의 'ㄷ'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교체된 것이 그것이다.
- ③ : '낫+일 → [남닐] → [남닐]', '물+약 → [물낙] → [물락]'의 음운 현상에서는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낫'의 'ㅅ'이 'ㄷ'으로, 그 'ㄷ'이 다시 'ㄴ'으로 교체된 것, '물약'에 'ㄴ'이 첨가된 후 'ㄴ'이 'ㄹ'로 교체된 것이 그것이다.
- ④ : '낫+일 → [남닐] → [남닐]', '꽃+말 → [꼇말] → [꼇말]', '팔+죽 → [판죽] → [판죽]'의 음운 현상에서는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음운 변동(음절 끝소리의 규칙)이 일어나고 있다. '낫'의 'ㅅ'이 'ㄷ'으로 교체된 것, '꼇'

의 'ㄷ'이 'ㄷ'으로 교체된 것, '팔'의 'ㅍ'이 'ㄷ'으로 교체된 것이 그것이다.



기억하라, 쑥.탁!

- 1. 탈락
- 2. ㄹ, ㅅ
- 3. ㄴ
- 4. 합성어, 된소리

8강_ 품사(1) - 품사의 분류, 체언, 용언



기출~ 탁!

p.56

<2016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A형>

13. 각 품사의 기능 파악

정답 ①

(해설) 자립 명사가 단위성 의존 명사의 기능을 하는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으로, 정답은 ①이다. ①~⑤의 밑줄 친 명사는 모두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특정 대상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데, 이 중 자립 명사로 쓰이지 않는 것을 찾으면 된다. ①의 '군데'는 '한 군데, 두 군데, 몇 군데' 등에서처럼 '날날의 곳을 세는 단위'의 의미를 지니는 의존 명사로 항상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하며, 자립 명사로 쓰이지 않는다.

[오답의 정체]

- ② : '그릇'은 '그릇을 비우다, 그릇을 씻다' 등에서처럼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기구'의 의미를 지니는 자립 명사로 쓰인다.
- ③ : '덩어리'는 '덩어리가 지다, 우박이 덩어리로 쏟아진다' 등에서처럼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의 의미를 지니는 자립 명사로 쓰인다.
- ④ : '술가락'은 '술가락으로 먹다, 술가락을 놓다' 등에서처럼 '밥이나 국물 따위를 떠먹는 기구'의 의미를 지니는 자립 명사로 쓰인다.
- ⑤ : '발자국'은 '발자국이 남다, 발자국을 따라가다' 등에서처럼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의 의미를 지니는 자립 명사로 쓰인다.

<201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 A형>

12.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 ①

(해설) ㉠의 '칠'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인 '개월'과 함께 쓰이고 있으므로 수관형사이다. ㉡의 '다섯'과 ㉢의 '팔'은 각각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인 '판', '년'과 함께 쓰이고 있으므로 수관형사이고, ㉣과 ㉤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와 함께 쓰이지 않으므로 수사이다.

<2014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A형>

12. 문장 성분 분석.적용

정답 ③

(해설) 이 문항은 <보기>에서 어말 어미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구분하여 설명한 뒤,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종결 어미는 한 문장을 종결되게 하는 어말 어미로 그 종류에 따라 평서형 종결 어미, 감탄형 종결 어미, 의문형 종결 어미, 명령형 종결 어미, 청유형 종결 어미로 나눌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읽었다'의 '다'는 평서형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연결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말 어미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끝으로,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말 어미로 명사 전성 어미, 관형사 전성 어미와 부사

전성 어미로 나뉘며 <보기>에 제시된 ㉠ ‘읽을’의 ‘-을’은 관형사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정답은 ㉢으로, ‘가는’의 ‘-는’은 ㉠의 연결 어미가 아닌 ㉡의 전성 어미, 그중에서도 관형사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오답의 정체]

- ① : ‘도착했구나’의 ‘-구나’는 흔히 감탄의 뜻을 지니며,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어말 어미로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 ② : ‘오시지?’의 ‘-지’는 어떤 사실을 물을 때 쓰이는 어말 어미로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맥락에 따라 ‘-지’가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등의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 경우에도 모두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 ④ : ‘먹었으나’의 ‘-으나’는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어말 어미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연결 어미(㉠)에 해당한다.
- ⑤ : ‘운동하기에’의 ‘-기’는 용언의 어간 ‘운동하’에 붙어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말 어미로,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2016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A형>

12. 연결 어미의 의미 파악 정답 ⑤

(해설) 예문을 통해 동사 어간에 결합되는 연결 어미 ‘-(으)며’의 문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으로, 정답은 ⑤이다. <보기>의 ㉠에서는 앞뒤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고, ‘-(으)며’를 ‘-(으)면서’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경우에 ‘-(으)며’는 앞뒤 문장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를 때, ⑤는 ‘일부는 버스를 이용하면서 일부는 지하철을 이용한다’가 의미적으로 어색하다는 점에서 ‘-(으)며’를 ‘-(으)면서’로 교체할 수 없고, 앞뒤 문장의 주어 ‘일부’가 서로 다른 집단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앞뒤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⑤의 ‘-(으)며’는 ‘앞뒤 문장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의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이것은 감이며 저것은 사과이다’, ‘남편은 친절하며 부인은 인정이 많다’에서처럼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열’하는 의미를 지닌다.

[오답의 정체]

①~④는 모두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다는 점, ‘-(으)며’를 ‘-(으)면서’로 교체하여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으)며’가 ‘앞뒤 문장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의 의미를 지니는 예문이다.

<2016학년도 대수능 A형>

13. 보조 용언을 통한 완료상 표현 정답 ④

(해설) 보조 용언 구성 ‘-고 있-’이 진행상(㉢)의 의미를 지닐 때, 완료상(㉡)의 의미를 지닐 때, 두 의미로 모두 해석 가능한 때(㉠)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해당되는 사례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문맥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경을 벗고 있다.’라는 문장에 대해 진행상과 완료상의 의미로 모두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④에서는 ‘안경을 잃어버린 뒤의 상황’이라는 일정한 문맥이 부여되어 해당 문장은 ‘안경을 벗고 지낸다.’ 정도의 완료상의 의미만 나타내기 때문이다.

[오답의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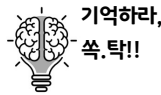
- ① : ‘양치질을 하는 중이었어요.’로 교체하여도 원래의 의미가 유지되는 것을 볼 때 진행상(㉢)의 예로 적절하다.
- ② : ‘오해하는 중이다.’로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 오해를 하고 있는 상태의 지속이라는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완료상(㉡)의 예로 적절하다.
- ③ : ‘아는 중이다.’로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 생신임을 아는 상태의 지속이라는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완료상(㉡)의 예로 적절하다.
- ⑤ : 해당 문맥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네.’는 ‘신입 사원이 넥타이를 매는 동작을 진행한다는 의미’, ‘신입 사원이 현재 넥타이를 매

고 있는 상태로 있다는 의미’로 모두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상과 완료상의 의미로 모두 해석 가능한 때(㉠)의 예로 적절하다.

<2017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

11. 음운 변동과 표기법 파악 정답 ③

(해설) ‘낫다’는 활용할 때 ‘낫[낫따], 나아[나아아]’와 같이 음운의 교체와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이에 비해 ‘날다’는 ‘날[나타], 날아[나아아]’와 같이 음운의 축약과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낫다’와 ‘날다’가 활용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탈락’이 된다. 그리고 활용의 유형을 보자면, 같은 ‘ㅅ’ 받침을 가진 ‘웃다’는 ‘웃고, 웃지, 웃어서, 웃으니’와 같이 어간과 어미가 규칙적인 데 반해, ‘낫다’는 ‘낫고, 낫지, 나아서, 나오니’와 같이 어간의 ‘ㅅ’이 탈락하므로 불규칙 활용을 한다. 따라서 ‘낫다’는 활용할 때 일어나는 음운 탈락이 표기에 반영되는 단어이다. 한편, ‘날다’는 ‘날고, 날지, 날아서, 날으니’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하는 단어로, 어간의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날다’는 활용할 때 일어나는 음운 탈락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단어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가)에는 ‘탈락’이, (나)에는 불규칙 활용이면서 표기에 반영됨을 나타내는 기호 ㉠이, (다)에는 규칙 활용이면서 표기에 반영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호 ㉡가 들어가게 되어 정답은 ③이 된다.



- 1. 불변어, 용언, 서술격 조사
- 2. 의존 명사
- 3. 어간, 선어말 어미
- 4. 본용언, 보조 용언

9강_ 품사(2) -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p.63

<2016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

12. 조사의 쓰임 파악 정답 ⑤

(해설) ‘처럼’은 체언에 결합하여 모양이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오답의 정체]

- ① : ‘라도’는 체언에 결합하여 ‘씩 좋은 것은 아니나 그런대로 괜찮음’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 ② : ‘야’는 체언에 결합하여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 ③ : ‘는’은 어미에 결합하여 ‘대조’나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 ④ : ‘만’은 부사에 결합하여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2016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A형>

12.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 ①

(해설) ‘그는 낯선 사람과 잘 사귀다.’는 낯선 사람이 사귀는 행위의 상대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예문이다. 그 예문은 ㉠의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오답의 정체]

- ② : ‘그는 형님과 고향에 다녀왔다.’는 다른 사람과 ‘일 따위를 함께’ 하는 뜻을 드러내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예문이다.
- ③ : 모두 격 조사로서의 의미를 보인 것이다. 보조사나 접속 조사로 보기 어렵다.
- ④ : ‘과’의 유의어인 ‘하고’와 마찬가지로 ‘이랑’도 “달(하고, 이랑) 오리는 동물이다.”, “책(하고, 이랑) 연필을 가져와라.”가 성립



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 앞말이 받침 있는 체언일 경우 예는 '과'가 쓰이고, 앞말이 받침 없는 체언일 경우에는 '와'가 쓰인다. 곧 앞의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면 '과'가, 모음으로 끝나면 '와'가 쓰인다. 예컨대 '말과 소'에서는 '과'가 쓰이지만 '소와 말'에서는 '와'가 쓰인다.

<2016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B형>

12.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 ①**
(해설) 흔히 잘못 쓰기 쉬운 '오', '요'의 표기에 대한 한글 맞춤법 규정을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이다. ㉠의 '아니오'는 '아니오'로 표기하여야 하는데,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가 나더라도 '오'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한 규정 ③을 ㉠의 올바른 표기 과정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짚지은 ①이 정답이다.

[오답의 정체]

- ㉠ : '가지요'의 '요'는 종결 어미 '-지' 뒤에 덧붙은 보조사이다. '요'가 보조사임은 이를 뺀 '영화 구경 가지.'가 성립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의 표기를 규정한 것은 ㉠이다.
- ㉡ : '설탕이요'의 '요'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열거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이며, '이-'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이다. ㉡의 설명을 볼 때 '이요'로 적어야 한다.

<2014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 A형>

13. 형용사와 관형사 구별 **정답 ②**
(해설) ㄱ의 '아름다운'은 '꽃이 아름답다'처럼 주어인 '꽃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며, ㄴ의 '빠른'은 '일처리가 빠르다'처럼 주어인 '일처리가'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므로 형용사이다. 하지만, ㄷ의 '웬'과 ㄹ의 '새', ㄹ의 '모든'은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관형사이다.

<2013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

12. 단어의 쓰임과 의미 파악 **정답 ⑤**
(해설) '같이'는 문장에서 조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 ⑤의 경우 '은숙이와 친구는 같이 사업을 했다.'에서 '같이'는 '서로 함께'의 의미로 쓰인 부사이다.

<2010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12. 감탄사의 용법 파악 **정답 ③**
(해설) ㉠의 '글썸'이 ㉡의 '글썸'으로 '-요'가 첨가된 것은 발화의 청자가 아들에서 아버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여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의 정체]

- ① : ㉠의 '뭐'는 다음에 이어지는 '명인'에 대해서 이의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여러 말 할 것 없이 수용하거나 긍정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 ② : ㉡은 상대방을 의식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바라는 발화이다.
- ④ : ㉡의 '음' 앞뒤에 반점(.)이 있다는 것은 독립어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 ㉡의 '아니오'는 부정하는 의미이고, '아니 ~ 될 일이나'의 '아니'는 놀라움의 의미이므로 둘은 의미가 같지 않다.



기억하라, 쑥.탁!!

- 1. 조사
- 2. 보조사, 접속 조사
- 3. 이, 가, 께서, 에서, 을, 를
- 4. 관형사, 부사

10강_ 형태소와 단어



p.69

<2016학년도 대수능 A형>

12. 형태소의 개념, 특성 파악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사례를 통해 형태소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문항이다. 우선 밑줄 친 '은/는', '들-/들-', '-았-/았-'은 모두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 하여 쓰여야 하는 의존 형태소들이다. 또한 이들은 각각 받침의 유무 및 결합하는 어간과 어미의 차이에 따라, 즉 음운 환경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이형태의 관계가 있는 형태소들이다. 먼저, '은/는'은 결합하는 말에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또한, '들다'의 어간 '들-'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어라'와 결합할때 '들-'로 형태가 바뀐다. 마지막으로,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 '-았-/았-'은 어간 끝음절의 모음에 따라 형태가 바뀌어 실현된다.

[오답의 정체]

- ① :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진술은 타당하지만, 해당 형태 소들은 모두 의존 형태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어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은/는'과 같은 조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단어의 자격을 부여한다.
- ② : '은/는'은 의존 형태소이지만 예외적으로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나머지는 단어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은/는', '-았-/았-'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 소(문법 형태소)이지만, 동사 어간 '들-/들-'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어휘 형태소)이다.
- ④ :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는 진술은 타당하지만, '들-/들-'은 실질 형태소(어휘 형태소)이다.
- ⑤ :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진술은 타당하지만, '들-/들-'은 실질 형태소(어휘 형태소)이다.

<2013학년도 대수능>

11. 이형태 **정답 ①**
(해설) <보기>에 따르면, '이형태'는 의미는 서로 같고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모양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 ①의 '에'와 '에서'는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이형태로 볼 수 없다. '에'는 앞말에 붙어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며, '에서'는 앞말에 붙어 출발점의 뜻을 갖게 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오답의 정체]

- ② : '로/으로'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으로', 모음으로 끝날 때는 '로'로 나타나는 이형태 관계에 있다.
- ③ : '나/이나'는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등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나', 모음으로 끝날 때는 '나'로 나타나는 이형태 관계에 있다.
- ④ : '면/으면'은 어떤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으면', 모음으로 끝날 때는 '면'로 나타나는 이형태 관계에 있다.
- ⑤ : '아라/어라'는 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어간의 끝이 'ㅏ, ㅑ'일 때는 '-아라'로, 어간의 끝이 그 외의 모음으로 끝날 때는 '-어라'로 나타나는 이형태 관계에 있다.

<2016학년도 대수능 B형>

12.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 ④**
(해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제시된 복합어의 사례들을 통해 파

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웃소매'와 '밥알'은 모두 합성어이지만 소리 나는 대로 '올소매', '바발'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적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웃소매'와 '밥알'은 ⑥만 충족하는 합성어이다.

[오답의 정체]

- ① : '이파리'는 ㉠의 사례가 되지만, '얼음'은 소리 나는 대로 '어름'으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적은 파생어이다.
- ② : '마소'는 ㉡의 사례가 되지만, '낮잠'은 소리 나는 대로 '남잠'으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적은 합성어이다.
- ③ : '웃음'은 ㉢의 사례가 되지만, '바가지'는 어법에 맞도록 '박아지'로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파생어이다.
- ⑤ : '꿈'은 ㉤의 사례가 되지만, '사랑니'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즉 ㉢만 충족하는 합성어이다.

<2014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 A형>

14. 합성어의 특성 이해 정답 ③

(해설) '마소'는 '말'과 '소'가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형태 변화는 있으나 의미 변화가 없다.

[오답의 정체]

- ① : '어제'와 '오늘'이 결합한 합성어로, 형태 변화는 없으나 '아주 최근이나 요 며칠 사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원래의 의미가 변화하였다.
- ② : '안'과 '밖'이 결합한 합성어로, 형태 변화가 있으며, '사람의 안팎'으로 쓰일 경우에는 '마음속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뜻으로 쓰이므로 의미가 변화하였다.
- ④ : '세'와 '네'가 결합한 합성어로, 형태 변화는 있으나 의미 변화는 없다.
- ⑤ : '술'과 '나무'가 결합한 합성어로, '술'의 'ㄹ'이 탈락하여 형태 변화는 있으나 의미 변화는 없다.

<2007학년도 대수능>

14. 파동 접미사에 대한 이해 정답 ⑤

(해설) <보기>에 제시된 '-되다'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능동인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더한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되다'는 일부의 명사나 어근, 부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서 해당하는 명사와 용언의 어근, 부사가 의미하는 상태나 성질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바뀌거나 변화한다는 의미를 더한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2017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11. 단어의 구조 파악 정답 ②

(해설) 이 글에 따르면,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해야 한다. '눈웃음'은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눈+웃음'이 된다. 3문단에서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눈웃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눈웃+음'으로는 분석할 수 없다. '웃음'은 '웃+음'으로 구성된 파생어이다. '-음'이 명사 파생 접미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눈웃음'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웃음'이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오답의 정체]

- ① : '나들이웃'은 '나들이+웃'로 분석되는 합성어이다. '나들이'는 '나들+이(접미사)'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다. 그러므로 '나들이웃'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 ③ : '드높이(다)'는 '드높+이'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파생어이다. '드높'은 '드-(접두사)+높'으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다. 그러므로 '드높이 다'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 ④ : '집집이'는 '집집+이(접미사)'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다. '집집'은

'집+집'으로 분석되는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집집이'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 ⑤ : '놀이터'는 '놀이+터'로 분석되는 합성어이다. '놀이'는 '놀+이(접미사)'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다. 그러므로 '놀이터'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기억하라, 속.탁!!

- 1. 형태소, 자립 형태소
- 2. 실질, 의존
- 3. 연결 어미
- 4. 직접 구성, 병, 따개

11강_ 단어의 의미 관계



기출~ 탁!

p.75

<2016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

15. 사전 정보 활용 정답 ④

(해설) <보기>의 사전 자료를 통해 '크다[Ⅱ]'는 주어만을 요구하지 만 '크다[Ⅰ]'의 사동사인 '키우다'는 주어 외에도 목적어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크다[Ⅱ]'는 사동사로 바뀌 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늘어난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오답의 정체]

- ① : 동음이의어는 사전에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하는데, <보기>에서 '크다[Ⅰ]'과 '크다[Ⅱ]'는 하나의 표제어 안에 기술되어 있다.
- ② : '크다[Ⅰ]' 뜻의 반의어로는 '작다'가 가능하지만, '크다[Ⅱ]' 뜻의 반의어로는 가능하지 않다.
- ③ : '키가 몰라보게 컸구나.'에서 '컸구나'는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키가 몰라보게 컸구나.'는 '크다[Ⅱ]'의 용례에 해당한다.
- ⑤ : <보기>를 보면 '크다'는 어미 '-어'가 결합하면 어간 '크-'의 끝의 모음이 탈락하지만 '키우다'는 어미 '-어'가 결합해도 어간 '키우-'의 끝의 모음이 탈락하지 않는다.

<2016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

1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③

(해설) 사전의 활용 정보를 보면, '이르다¹'은 '이르러, 이르니'와 같이 활용되며, '이르다²'와 '이르다³'은 '일러, 이르니'와 같이 활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르다'는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용언임을 알 수 있고, '이르다²'와 '이르다³'은 어간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용언임을 알 수 있다.

<2016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A형>

13.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③

(해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노력한다.'에서 '뿌리'는 자연물 '뿌리'가 아니라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는 근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중심적 의미가 아니라 주변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잡초가 다시 자라지 않도록 뿌리를 뽑았다.'에서의 '뿌리'는 자연물 자체를 드러내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다. 그러므로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오답의 정체]

- ① : '천체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관찰했다.'에서의 '별'은 자연물 자체를 가리키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고 '어제 물리학계의 큰 별이 졌다.'에서의 '별'은 어떤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 ② :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다.'에서의 '번개'는 자연현상 자체를 가리키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고 '그는 도망가는 데만큼은



정말 번개야.'에서의 '번개'는 동작이 아주 빠르고 날랜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 ④ : '일출을 기다리는 우리 앞에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에서의 '태양'은 자연물 자체를 가리키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고 '그녀는 그가 자기 마음의 태양이라고 말했다.'에서의 '태양'은 매우 소중한거나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 ⑤ : '들판에는 풀잎마나 이슬이 맺혔다.'에서의 '이슬'은 자연물 자체를 가리키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고 '그녀의 두 눈에 맺힌 이슬이 뜨겁게 흘러내렸다.'에서의 '이슬'은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2013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A형>

11. 단어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 ⑤**

(해설) '서다'의 중심적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한다.'이고, '앉다'의 중심적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이 뒷몸을 바로 한 상태에서 엉덩이에 몸무게를 실어 다른 물건 위에 몸을 올려놓거나 무릎을 구부려 엉덩이를 다리나 발 위에 올려놓다.'이다. ⑤의 '서다'와 '앉다'는 이러한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어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

[오답의 정체]

- ①, ③ : '서다'와 '앉다' 모두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 '서다'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으나, '앉다'는 '새나 곤충 따위가 일정한 곳에 내려 자기 몸을 다른 물건 위에 놓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 '서다'는 주변적 의미로, '앉다'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2016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

14. 유의어의 의미와 쓰임 **정답 ④**

(해설) '르'의 첫 번째 예문을 보면 '속'이 신체에 대해 쓰였으므로, ④에서 '속'이 추상적인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의 정체]

- ① : 'ㄱ'을 보면 '속'과 '안'은 '건물 {속/안}으로 들어간다.'와 같이 공통적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사물이나 영역의 내부'라는 공통 의미를 지닌 유의어라 할 수 있다.
- ② : 'ㄴ'을 보면 시간적 범위를 나타낼 때는 '속'이 아니라, '안'이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 'ㄷ'처럼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 등을 나타내는 관용구에는 '안'이 아니라 '속'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 ⑤ : 'ㄹ'의 첫 번째 예문에서는 '속'과 '겉'의 대립 관계를, 두 번째 예문에서는 '안'과 '바깥'의 대립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속'은 '겉'과 반의 관계를, '안'은 '바깥'과 반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2013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 A형>

14. 단어의 의미 관계 이해 **정답 ④**

(해설) '쓰다'와 '달다'는 맛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의 관계이고, <보기>의 '입다'와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쓰다'와 '달다'는 '입다'의 하위어일 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기억하라,
쑥.탁!!**

- 1. 다의어
- 2. 동음이의
- 3. 반의
- 4. 상하
- 5. 얼굴, 축소

12강_ 문장의 성분



p.82

<2014학년도 대수능 예비 시행 A형>

12. 목적어의 쓰임 파악 **정답 ③**

(해설) 이 문항은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문장 성분 중에서 '목적어'의 쓰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탐구하는 문항이다. ㉠은 '먹었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목적어로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된 '빵을'이 사용되었다. ㉡은 '마실까?'라는 서술어의 목적어로, 목적격 조사대신 보조사 '나'가 결합된 '우유나'가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 ㉣의 경우 목적어가 생략되면 문장이 불완전해지므로 목적어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이다.

[오답의 정체]

- ① : '먹었다'와 '보시고'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목적어로 '빵을'과 '모습을'이 사용되었다.
- ② : ㉠에서 목적어 '빵을'은 주어의 뒤, 서술어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서는 목적어 '모습을'이 주어인 '어머니께서'의 앞에 위치하고 있다.
- ④ : ㉠에는 목적어 '빵을'이 사용되었으나 ㉡은 목적어 없이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
- ⑤ : ㉠의 '빵' 뒤에는 '을'이, ㉢의 '우유' 뒤에는 '를'이 사용되고 있다.

<2015학년도 대수능>

15.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 ②**

(해설) 이 문항은 '서술어 자릿수'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어가 요구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②에 제시된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아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된 경우로, 이를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라고 수정한 것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보충함으로써 문장을 정확하게 고친 경우가 아니다.

[오답의 정체]

- ① : 서술어 '요청하다'는 【...에/에게 ...을】의 꼴로 쓰여, 부사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에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정부에'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 ③ : 서술어 '소개하다'는 【...에/에게 ...을】의 꼴로 쓰여, 부사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에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누나에게'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 ④ : 서술어 '삼다'는 【...을 ...으로】의 꼴로 쓰여,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에는 목적어가 없었으므로 '그 일'을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 ⑤ : '어떤 분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다.'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 '어둡다'는 【...에】의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형은 이곳에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에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동네 지리에'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2016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B형>

13. 문장 성분 분석, 적용 **정답 ①**
(해설) 특정 서술어의 문형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일련의 절차로 제시한 후 이를 다른 서술어에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이다. <보기>에서 '지내다'의 문형 정보로 【-게】를 제시한 것은 '지내다'가 '조용하게, 편하게'와 같은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①의 제시된 두 예문에서 '산으로, 가족으로'는 '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이며, 이때 '되다'는 '어떤 재로나 성분으로 이루어지다'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되다'의 문형 정보를 【...으로】로 추출하는 것은 타당하다.

[오답의 정체]

- ② :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가 생략되어도 제시된 문장들이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들은 '넘어가다'의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따라서 '넘어가다'의 문형 정보로 【-게】를 추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제시된 두 예문에서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은 '속임수에', '피에'이기 때문에 【...에/에게】를 '넘어가 다'의 문형 정보로 추출해야 한다.
- ③ : '웃 때문에, 한밤중에'가 생략되어도 제시된 문장들이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들은 '다투다'의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따라서 '다투다'의 문형 정보로 【...에】를 추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제시된 두 예문에서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은 '언니와', '누군가와'이기 때문에 【...와/ 과】를 '다투다'의 문형 정보로 추출해야 한다.
- ④ : '사은품으로, 부록으로'가 생략되어도 제시된 문장들이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들은 '팔리다'의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따라서 '팔리다'의 문형 정보로 【...으로】를 추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제시된 두 예문에서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은 '가방에, 그 책에'이기 때문에 【...에/에게】를 '팔리다'의 문형 정보로 추출해야 한다.
- ⑤ : '깨끗하게, 허영게'가 생략되어도 제시된 문장들이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들은 '빠지다'의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따라서 '빠지다'의 문형 정보로 【-게】를 추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때가, 물이'라는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은 '웃에서, 청바지에서'이기 때문에 【...에서】를 '빠지다'의 문형 정보로 추출해야 한다.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11. 필수적 부사어 **정답 ⑤**
(해설) ⑤의 '주다'는 '~에/에게 ~을 주다'의 문장 구조로 실현되므로 '지혜에게'는 문장 구조상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부사어이며, '빌리다'는 '~에서/에게서 ~을 빌리다'의 문장 구조로 실현되므로 '친구에게'도 필수적 부사어이다.

[오답의 정체]

- ① : '비슷하다'는 '~과 비슷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이것과'는 필수적 부사어이나, '보다'는 '~을/를 보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 ② : '이탈하다'는 '~에서 이탈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궤도에서'는 필수적 부사어이나, '만나다'는 '~을/를 만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 ③ : '잡다'는 '~을/를 잡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몽둥이로'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며, '삼다'는 '~을 ~으로 삼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사위로'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 ④ : '적합하다'는 '~에/에게 적합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벼농사에'는 필수적 부사어이며, '방문하다'는 '(어떤 사람이나 장소)에 방문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오후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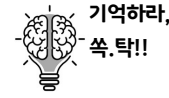
<201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 A형>

13.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 파악 **정답 ④**
(해설) ㄱ은 주어(그가)와 서술어(되었다)의 관계가 한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고, ㄴ은 '창문이(주어) 많다(서술어)'라는 문장이 다

시 전체 문장에 서술절로 안겨 있는 겹문장이다.

[오답의 정체]

- ① ㄱ에서 '대학생이'의 문장 성분은 보어이다.
- ③ ㄱ의 '마침내', ㄴ의 '아주'는 부사어이다.
- ⑤ ㄷ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며, ㄹ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1. 자릿수, 세 자리
- 2. 되다, 아니다
- 3. 관형어, 의존 명사
- 4. 필수 부사어

13강_ 문장의 짜임 - 안은문장, 이어진 문장



p.89

<2014학년도 대수능 A형>

13. 문장 성분 분석, 적용 **정답 ④**
(해설) 이 문항은 명사절이 문장 속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현상과 각각의 용례를 제시한 후 그에 대해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④로, ㉠에서 명사절 '겨울이 오기'에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명사절이 명사 '전(前)'을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어가 아닌 관형어 역할을 한다.

[오답의 정체]

- ① : 명사절 '색깔이 희기'는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다.
- ② : 명사절 '비가 오기'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③ : 명사절 '자식이 행복하기'가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으며, 목적격 조사 '를'은 생략되었다.
- ⑤ : 명사절 '우리가 학교에 가기'는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2015학년도 대수능 A형>

13. 문장 성분 분석, 적용 **정답 ⑤**
(해설) 이 문항에서는 문장 성분과 문장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된 두 문장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문장은 각각 '내가 노래 부르기',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이라는 명사절이 '친구들은 원한다.'와 '우리는 몰랐다.'에 안겨 있는 겹문장이다. ㉠의 안긴문장 '내가 노래 부르기'에는 '노래(를)'라는 목적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에는 목적어가 없다. ㉡에서 '벼농사에'는 '적합함'이라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이지 목적어가 아니다.

[오답의 정체]

- ① : ㉠과 ㉡의 문장 성분을 큰 틀에서 분석해 보면, 각각 [주어 + 목적어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 서술어], [주어 + 목적어 (주어 + 부사어 + 서술어) + 서술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사어는 ㉡에만 나타날 뿐 ㉠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 ㉠과 ㉡은 모두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며, 두 문장 모두에서 부사절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 ㉠과 ㉡은 모두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며, 두 문장 모두에서 서술절이나 관형절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 ㉠의 문장에는 관형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의 문장에는 '이'가 '지역'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으며, '이 지역'이라는 구 역시 '토양'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다.

<2017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14. 문장의 짜임새

정답 ③

(해설)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어제 부모님이 일을 시키셨다.'가 된다. '일'은 뒤에 '을'이 붙어 목적어로 기능을 하는 ㉠에 해당하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두 사람이 어제 공원에서 헤어졌다.'가 된다. '공원'은 뒤에 '에서'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어 ㉡에 해당하는 예이다.

[오답의 정체]

- ① :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그들이 어제 결혼했다.'가 된다. 또한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친구가 누나를 많이 닮았다.'가 되어, '그들', '친구'가 각 문장의 주어 기능을 한다.
- ② :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탁자가 나무로 되었다.'가 된다. 또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생각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가 되어, '탁자', '생각'이 각 문장의 주어의 기능을 한다.
- ④ :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친구가 나에게 옷을 주었다.'가 된다. 또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누나는 털실로 장갑을 짰다.'가 되어, '옷'과 '장갑'은 각 문장의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 ⑤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아이들이 주말에 운동장에서 공을 쳤다.'가 된다.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관중이 경기장에 쓰레기를 남겼다.'가 되어, '주말', '경기장'은 뒤에 '에'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2016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

13. 문장의 짜임

정답 ④

(해설) ㄷ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동생이'이고 안은문장의 주어는 '오빠가'이므로 ㄷ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그러나 ㄴ의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의 주어는 모두 '누나가'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의 정체]

- ① : ㄱ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고, ㄴ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② : ㄴ과 ㄷ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둘 다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③ : ㄷ의 안긴문장은 안긴문장 속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나, ㄴ의 안긴문장은 안긴문장 속에 필수 성분이 생략되지 않았다.
- ⑤ : ㄹ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고, ㄴ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2016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

13. 문장의 짜임

정답 ⑤

(해설) ⑤의 '그 사람과 나는 오래 전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에는 ① ~ ④와 같이 '와/과'가 사용되었지만, 이 문장은 두 개의 홑문장, 즉 '그 사람은 오래 전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와 '나는 오래 전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 문장에 쓰인 '과'는 행위의 상대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보기>의 설명대로 서술어가 '사귀어 왔다' 하나이므로 ⑤는 이어진 문장이 아닌 홑문장이다.

[오답의 정체]

'이어진문장'이란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야.'처럼 둘 이상의 홑문장이 이어진 것으로, 이때 서술어의 개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어진 홑문장의 개수와 같다. 그런데 <보기>에 제시된 문장의 경우, 서술어의 개수가 하나뿐이어서 홑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홑문장이 결합된 이어진문장이다. 이처럼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 등의 특정 문장성분들이 접속 조사 '와/과'에 의해 이어져 홑문장처럼 보이는 이어진문장이 있는데, ①~④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나씩 살펴보면, ①은 '나는 시를 좋아한다.'와 '나는 소설을 좋아한다.'가, ②는 '그녀는 집에서 공부했다.'와 '그녀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다.'가, ③은 '고향의 산은 예전 그대로였다.'와 '고향의 하늘은 예전 그대로였다.'가, ④는 '성난 군중이 앞문으로 들이닥쳤다.'와 '성난 군중이 뒷문으로 들이닥쳤다.'가 각각 결합된 이어진문장이며, 이때 쓰인 '와/과'는 접속 조사이다.

<2016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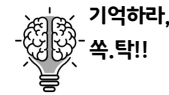
14. 문장의 구조 파악

정답 ②

(해설) ㉠의 주어 '나는'의 서술어는 '기다렸고'이고, ㉡은 '기다렸고'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므로 ㉡을 '나는'의 서술어라고 진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의 정체]

- ① : ㉠과 ㉡은 서로 내용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두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보았을 때, 내용상 차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 ㉠은 '나는 기다렸다' 속에 '형이 오다'가 안겨 있고, ㉡은 '동생은 책을 읽었다' 속에 '형이 주었다'가 안겨 있으므로 주어-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④ : ㉡과 ㉢은 각각 안은문장 속에 안겨 있는 절로,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씩 나타난다.
- ⑤ : ㉡은 뒤에 나오는 명사 '책'을 수식하는 관형절이며, 동시에 ㉢에 안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 겹문장
- 2. -ㅁ/음, -기
- 3. 서술어, 서술절
- 4. 인과(이유), 접속

14강_ 문법 요소(1) - 높임, 종결, 인용 표현



p.95

<2016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

13. 높임 표현 파악하기

정답 ④

(해설) '선생님'은 주체가 아니라 상대이다. 이 문장의 주체는 '제(나)'이다.

[오답의 정체]

- ② 행위의 대상이 되는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주다'의 의미를 지닌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 하여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에게'의 의미를 지닌 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 ⑤ ㉡에서 청자는 '아버지'이므로 상대는 '아버지'이고 높임의 대상인 '아버지'를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다.

<2014학년도 대수능>

15. 높임 표현 파악

정답 ③

(해설) 이 문항은 우리말에서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방식을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후 해당되는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③ 으로, '떡다-잡수시다'의

관계를 볼 때 주체(할머니)를 높이는 용언(㉠)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이-연세'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나이)을 높이는 명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의 정체]

- ① :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그분'과 '성함'인데, 전자는 '그 사람-그분'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그 사람)을 직접 높이는 명사(그분, 대명사)이고, 후자는 '이름-성함'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그 사람)과 관련된 것(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명사(㉡)이다.
- ② :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여쭙'과 '덕'인데, 전자는 '묻다-여쭙다'의 관계를 볼 때 객체(물음을 받는 대상)를 높이는 용언이며, 후자는 '집-덕'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집)을 높이는 명사(㉡)이다.
- ④ :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부모님'과 '모시고'인데, 전자는 '부모-부모님'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부모)을 직접 높이는 명사(부모님)이고, 후자는 '데리다-모시다'의 관계를 볼 때 객체(부모님)를 높이는 용언이다.
- ⑤ :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주무시다'인데, '자다-주무시다'의 관계를 볼 때 이는 주체(어머니)를 높이는 용언(㉠)이다.

<2015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13. 높임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②
(해설) ㉠에서 '말씀'은 말하는 이(경준)가 높이는 대상인 '선생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대상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있었니'가 아니라 '있으셨니'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의 정체]

- ① : ㉠에서 서술어 '준비하다'의 주체는 '경준'이기 때문에 영희의 입장에서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
- ③ : ㉡에서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묻다'가 아니라 객체 높임법에 사용되는 특수한 동사 '여쭙다'를 써서 말해야 한다.
- ④ : ㉢의 '자기'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재귀 대명사)이다. 그런데 이 대명사가 영희가 높여야 하는 대상인 '선생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높임의 의미를 지니는 '당신'으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 ⑤ : ㉣의 주체는 영희의 입장에서 높여야 하는 대상인 '선생님'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을 실현하여 '말씀하셨잖아'라고 말해야 한다.

<2016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15. 문장 종결 표현 파악 정답 ⑤
(해설) 일부 의문문과 청유문이 화자가 청자에게 특정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으로, 정답은 ⑤이다. ⑤의 '어디 보자'는 특정한 청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발화가 아니며, 혼잣말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B의 발화 '거기서 혼자 뭐 해요'를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오답의 정체]

- ① : 의문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기다리는 행위를 함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② : 청유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다친 곳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③ : 청유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내릴 수 있게 비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④ : 의문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모자를 벗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14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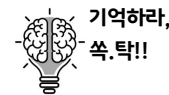
14. 문장의 종결 표현 파악 정답 ①
(해설) 이 문장은 <보기 1>을 통해 우리말의 종결 표현 중 의문문에 대해 설명한 후, 의문문의 다양한 의미기능을 제시된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우리말의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여기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과 '몇, 얼마,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왜' 등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듣는 이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 그리고 굳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내는 수사 의문문이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①은 설명 의문문에 대한 진술이며, ②은 수사 의문문 중에서도 명령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은 ①로, ③에는 '언제, 어디'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 의문문에 해당한다. 또한 ④는 '일어나지 못하겠니?'라는 의문문의 형식을 띠지만, 실제 로는 '일어나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은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오답의 정체]

④는 듣는 이로 하여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에 해당하며, ③은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2017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14. 인용 표현 파악 정답 ①
(해설) <보기>의 첫 번째 예시에서 인용된 발하는 어제 말한 것이므로, ㉠은 어제 시점에서의 '내일', 곧 '오늘'이 되어야 한다. 또 '계십시오'는 아들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쓴 것인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말할 때 아들의 말이 간접 인용이 되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나'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표현을 쓸 수 없으므로 '있-'으로 서술어를 바꾸어야 하고 명령문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으)라고'를 써야 하므로 '있으라고'로 말해야 한다. <보기>의 두 번째 예시에서 인용된 발하는 언니가 말한 것이므로, ㉡에는 주어 '언니'를 다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 '자기'를 사용한 '자기의'가 들어가야 한다. 또 직접 인용의 명령형 '남겨라'는 간접 인용에서는 어간 '남기-'에 '-(으)라고'가 붙어야 하므로 '남기라고'가 되어야 한다.



- 1. 상대, 종결
- 2. -시-
- 3. 드리다, 빌다
- 4. 간접
- 5. 라고, 고

15강_ 문법 요소(2) - 시간 표현, 부정 표현



<2013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 A형>
 15. 시간 표현 이해 정답 ③
(해설) '산 책'에서 '산'의 관형사형 어미 '-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니'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의 정체]

- ① : '-고 있구나.'는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동작상 중, 진행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② : '-았-'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어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는 과거 시제를 표현한다.
- ④ : '-어 버렸어요'는 동생에게 책을 준 행위를 완결했음을 나타내



는 완료상의 표현이다.

- ⑤ : '공부할'은 앞으로 공부를 하려고 함을 나타내며, 관형사형 어미 '-르'이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시제 표현이다.

<2015학년도 대수능 A형>

12. 시제 표현 파악

정답 ④

[해설] 이 문항은 선어말 어미 '-았-/었-'이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 임(㉠)'을 나타낼 때, '과거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됨(㉡)'을 나타낼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나타낼 때 사용된다는 <보기>의 설명을 통해 선어말 어미 '-았-/었-'의 다양한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④이다. ④는 '소풍날'이라는 과거 시간에 '날씨'라는 상태가 나뻐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임(㉠)'을 나타내기 위해 '-았-'이 쓰인 것이다.

[오답의 정체]

- ① : '어제'라는 과거의 시간에 '텔레비전을 본'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 '-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② : '아까'라는 과거의 시간에 '할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간'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 '-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③ : '아직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목이 잠긴' 과거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⑤ : 과제 준비 때문에 앞으로 잠을 자지 못할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 '-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예이다.

<201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 B형>

14. 선어말어미의 의미 파악

정답 ①

[해설]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는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의도를 '-겠-'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의 정체]

- ② : '가겠다고'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동시에 자신의 의지를 담고 있다.
- ③ : '도착하겠구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추측, 또는 가능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④ : '시원해지겠지?'는 다음 달의 날씨에 대해 추측하고 있는 표현이다.
- ⑤ : '이겨내겠다'는 말하는 이의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017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13. 문법 요소

정답 ③

[해설]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기능과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에서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2인칭, 3인칭 인물의 의지는 화자가 알 수 없으므로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과거 일에 대해서는 주체의 의지를 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가령 "나는 집에 가겠다."는 미래의 일이므로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으나 "나는 집에 갔겠다."는 과거의 일이므로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2014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 A형>

12. 부정 표현 이해

정답 ⑤

[해설] '꽃이 안 예쁘다.'는 부정 부사 '안'이 쓰인 짧은 부정문이다. 그러나 '예쁘다'는 행동 주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없는 형용

사이므로, '꽃이 안 예쁘다.'는 행동 주체인 '꽃'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행위를 부정하는 의지 부정이 아니라, 상태 부정에 해당한다.

[오답의 정체]

- ① : 긴 부정문의 명명문을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아 라.'처럼 쓸 수 없으므로, '마라'를 이용하여 긴 부정문의 명명문을 만들 수 있다.
- ② : '못하다'를 이용한 긴 부정문으로 능력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부정 부사 '못'을 이용한 짧은 부정문으로 능력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않다'를 이용한 긴 부정문으로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상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기억하라, 쑥! 탁!

- 1. 과거, -았-, -었-
- 2. -겠-
- 3. 못, 못한다
- 4. 말다

16강_ 문법 요소(3) - 피동 표현, 사동 표현



기출~ 탁!

p.106

<2014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 A형>

13. 국어의 피동 표현 이해

정답 ①

[해설]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 하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 한다.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는 누군가가 아이가 밥을 먹도록 시킨 것이므로 이는 '아이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문에 해당한다.

[오답의 정체]

- ② '당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부당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겪거나 입다.'로 피동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꼬마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는 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에 의해 만들어진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2014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A형>

13. 피동사 이해

정답 ②

[해설] '갈-리다¹'과 '갈-리다²'의 품사가 모두 동사라는 점, '갈-리다¹'과 '갈-리다²'가 모두 동작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것에 대응되는 능동사 '갈다¹'과 '갈다²'의 품사는 동사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의 정체]

- ① : '갈-리다¹'의 의미를 고려할 때, '갈다¹'에는 ①과 ②의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갈다¹'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인 다의어(多義語)임을 추론할 수 있다.
- ③ : '갈-리다¹'과 '갈다¹'은 피동사와 능동사의 관계로 '갈리다¹'는 '갈- + -리- + -다'로 분석되어 피동 접미사 '-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 '갈-리다¹'①이 '갈다¹'①의 피동사적 의미를 지님을 고려하면, '갈다¹'①은 '갈-리다¹'①과 비교하여 능동사적 의미를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 '갈-리다²'와 '갈다²'가 피동사와 능동사의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면, '갈다²'의 의미로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를 추론할 수 있다.

<2014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A형>

13. 사동사 이해

정답 ②

(해설) ㉠과 ㉡의 A(주동문)에서는 서술어 '숨는다'와 '낮다'가 각각 '동생이'와 '실내 온도'라는 주어만을 필요로 함에 비해,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에서는 '누나가'라는 주어에 더해 각각 '동생을'과 '실내 온도를'이라는 목적어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A에서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난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문장의 서술어가 그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 현상'을 가리키는데,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할 때는 한 자리 서술어, 주어 이외에 목적어, 부사어, 보어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할 때는 두 자리 서술어, "형이 누나에게 선물을 준다."의 '준다'처럼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세 가지를 필요로 할 때는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오답의 정체]

- ① : ㉠에서 A(주동문)의 주어는 '동생이'인데, C('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에서는 '동생을'이라는 목적어로 바뀌었다. ㉡에서 A의 주어는 '동생이'인데, C에 서는 '동생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뀌었다.
- ③ : 접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가리키는데, ㉠과 ㉡의 A(주동문)와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모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접문장이 아니다.
- ④ : ㉡ A의 서술어 '차다'는 타동사인데 B의 사례가 없음을 통해 '공을 차다'의 서술어 '차다'에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 A(주동문)의 서술어 '먹다'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에서 '먹이다'라는 사동사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 ㉠ A(주동문)의 서술어 '낮다'는 형용사이고, ㉡의 A의 서술어 '차다'는 동사이다. 또한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도, ㉡의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와 C('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2015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A형>

13. 피동사와 사동사 이해

정답 ⑤

(해설) 이 문항에서는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사동사와 피동사를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기다'의 '안기다'는 사동사이며, ㉡ '아기 꿈이 어미 품에 안기다'의 '안기다'는 피동사이다. 참고로 '품에 안기다'의 경우에도 '할머니가 아기를 어머니 품에 안기다'의 '안기다'도 사동사이다.

[오답의 정체]

- ① : '운동화 끈을 풀다', '피로를 풀다'와 비교할 때 ㉠의 '풀리다'와 ㉡의 '풀리다'는 모두 피동사이다.
- ② :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다'와 비교할 때 ㉠의 '업히다'는 피동사이며, '이모가 아이를 업다'와 비교할 때 ㉡의 '업히다'는 사동사이다.
- ③ : '웃이 마르다'와 비교할 때 ㉠의 '말리다'는 사동사이다. ㉡의 '말리다'는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못하게 방해하다'의 뜻을 지니며 피동사도 아니고 사동사도 아니다.
- ④ : '몸이 녹다', '고드름이 녹다'와 비교할 때 ㉠의 '녹이다'와 ㉡의 '녹이다'는 모두 사동사이다.

<2014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 B형>

15. 문법 범주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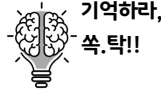
정답 ⑤

(해설) ㉡의 '-기-'는 행위 주체인 '도둑'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대상인 '경찰'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피동 접미사이다.

[오답의 정체]

- ① : ㉠에서는 행위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먹다'의 높임말인 '들다'에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에서는 행위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날리다'에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 ② : ㉠의 '-ㄴ-'은 현재를, ㉡의 '-었-'은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③ : ㉠의 '-리-'는 행위 주체인 '아버지'가 다른 대상인 '연'이 날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사동 접미사이다.
- ④ : ㉡의 '-겠-'은 '가다'라는 행위에 대한 행위 주체 '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1. -이-, -히-, -리-, -기-
- 2. 이중
- 3. 사동
- 4. 직접, 간접

17강_ 정확한 문장 표현



p.112

<2016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

15. 문장의 정확성 파악

정답 ①

(해설) '모름지기'는 '~ 해야 한다'와 호응하므로, ㉠은 '고등학교라면 모름지기 그 정도는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정도로 수정되어야 바른 문장이 된다. 그러나 성분 간의 호응 문제는 <보기>에서 제시한 '문법적으로 바르지 않은 문장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의 정체]

- ② :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와 같이 수정할 수 있는 문장으로, '연결어미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③ : '그 시설은 지금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와 같이 수정할 수 있는 문장으로 <보기>의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과도한 피동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④ :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다.'와 같이 수정할 수 있는 문장으로, '목적어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잘못 생략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⑤ : '어머니'에게 '외할머니'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서술어 '드린'에 맞추어 높임의 격 조사 '께'를 써야 한다는 점에서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016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14.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은 ③

(해설) <자료>에서 수정 전후의 문장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 '비록 초보자일수록'이 '비록 초보자일지라도'로 수정되었고, '그러서 작성할 수 있다'가 '그러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로 고쳐졌다. 전자는 '비록'이라는 부사어와 연결어미 '-르지라도'의 정확한 호응을 고려한 결과이고, 후자는 '작성하다'의 목적어 '문서를'이 누락된 것을 바로잡은 결과이다.

<2016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14.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 ④

(해설) <보기 2>에서 바뀐 부분은 세 군데이다. 첫째, '참여하려는'이 '참여한'으로 바뀌었다. 이는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 과거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을 고려한 수정이다. 둘째, '각 지역에'가 '각 지역의'로 바뀌었다. '각 지역의'가 '청소년들'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쓰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을 고려한 수정이다. '각 지역에'처럼 부사격 조사가 붙은 부사어로 쓰는 것은 '각 지역에 소통하고 답사하다'와 같이 서술어를 꾸며 준다는 뜻인데 이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셋째, '답사함으로써' 앞에 '유적지를'이 첨가되었다. '답사하다'라는 동사가 누가 어디를 답사하는지 밝혀 주어야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인데 목적



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을 고려한 수정이다.

[오답의 정체]

- ① ㉠이 빠져 있다.
- ② ㉠과 ㉡이 빠져 있고 ㉢이 부당하게 들어가 있다.
- ③ ㉠과 ㉡이 빠져 있고 ㉢이 부당하게 들어가 있다.
- ⑤ ㉠이 빠져 있고 ㉢이 부당하게 들어가 있다.

<2016학년도 대수능 A형>

15. 문장의 정확성 파악 **정답 ②**
(해설) 다양한 유형의 비문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②에서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의 정체]

- ① : '그는 이론을 발전해'라는 부분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 문장이다.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 ③ : '생산 기술의 발달'과 '큰 변화를 겪었다'가 상응하지 않는 문장이다.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이 발달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 ④ : '요점'과 '알아야 한다'를 확인해 보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 문장이다.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 ⑤ : '이름의 혼동'과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가 상응하지 않는 문장이다.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을 혼동하거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2015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15.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 ①**
(해설) ㉠의 수정 과정에서 추가된 '물'은 목적어 '밭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아니라, '넣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오답의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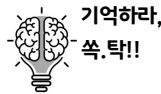
- ② : ㉠에서는 '개선된다'를 '개선된다는 것이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내가 주장하는 바는'과 서술어가 호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 ③ : ㉠에서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를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불편'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불편'과 호응하는 서술어 '겪고'를 추가하여 문장을 수정한 것이다.
- ④ : ㉠에서는 '운동을 동참합니다'를 '운동에 동참합니다'로 수정하였는데, 서술어 '동참합니다'에 호응하는 부사어의 조사를 '에'로 올바르게 고친 것이다.
- ⑤ : ㉠에서는 '여간 기쁜 일이다'를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로 수정하였는데, '여간'은 '그 상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것임'을 뜻하는 부사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하기 때문에 '일이다'를 '일이 아니다'로 수정한 것이다.

<2014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15. 의미의 중의성 파악·해소 **정답 ③**
(해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을 지니는 문장으로,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와 현재 교복을 다 입은 후의 상태라는 의미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처럼 "교복을 입는 중이다."라고 치면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만을 나타내게 되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에서와 같이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라고 수정하여도 여전히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즉, ㉢의 수정된 문장은 처음 문장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문이다.

[오답의 정체]

- ① : '예쁜 모자의 장식물'은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모자가 예쁜 경우'와 '장식물이 예쁜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장식물이 예쁜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예쁜, 모자의 장식물'과 같이 심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에서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 ② : "다 오지 않았어."는 부정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와 '한 명도 오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나 ㉡의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처럼 표현을 수정하면 된다.
- ④ :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라는 문장은 비교의 대상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형이 나와 동생 중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와 '내가 동생을 좋아하는 것보다 형이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 즉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나 ㉣의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처럼 문장을 수정하면 된다.
- ⑤ :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는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문장으로,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와 '손님이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표현을 수정하거나 ㉤의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



- 1. 서술어, 비가 내리고
- 2. 중복, 오해하고
- 3. 수식, 중의
- 4. 사동, 소개해

18강_ 답화



p.117

<2016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

15. 직접발화와 간접발화의 이해 **정답 ④**
(해설) ㉠에서 소연은, 학교에 늦은 지연에게 학교에 빨리 가라고 명령하려는 의도를 '가라'는 명령형 종결 표현을 통해 지연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의도와 종결 표현을 일치시키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14학년도 대수능 예비 시행>

14.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이해 **정답 ③**
(해설) 이 문항은 담화가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화자의 의도 표현 등과 관련된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의 '구정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라는 의문문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모를 때라는 담화 상황을 볼 때 길을 묻는 의도가 직접 드러난 발화로 볼 수 있다.

[오답의 정체]

- ① : '아, 목마르다.'는 귀가한 후 누나에게 발화한 상황으로 볼 때 '물을 달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 추운 교실이라는 상황에서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 발화한 것으로, 창문이 열린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창을 닫게

- 하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④ : 의문형으로 표현되었지만, 동생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옷을 빌려 달라는 동생에게 빌려주기 싫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⑤ : 추운 겨울 선생님을 맞이하면서 하는 발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차를 드시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학년도 대수능>

14. 지시 표현의 이해 **정답 ⑤**
(해설) ㉠의 ‘저희’는 1인칭 복수 ‘우리’의 낮춤말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가리키는(재귀) 3인칭 대명사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집 아이들’, 즉 ‘선생님의 아이들’을 가리킨다.

[오답의 정체]

- ① : ㉠의 ‘이것’은 학생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② : ㉡의 ‘그것’은 할아버지께서 생일마다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③ : ㉢의 ‘당신’은 2인칭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인 ‘자기’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자기’와 “선생님께서도 당신께서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당신’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의 ‘당신’은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 ㉤의 ‘우리’는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가족을 가리키기 때문에 청자(학생)를 포함하지 않는다.

<2016학년도 대수능 B형>

13. 담화 내의 호칭어 및 지칭어 파악 **정답 ⑤**
(해설) 대화 상황 내에 사용되는 호칭어와 지칭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보기>의 담화 상황은 엄마와 아들의 대화이기 때문에 ㉠ ‘누나’는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제삼자를 가리키지만 ㉡의 ‘영수’는 청자인 아들을 가리킨다.

[오답의 정체]

- ① : ㉠ ‘엄마’와 ㉡ ‘누나’는 모두 청자인 아들(영수)의 관점에서 지칭어를 사용한 경우이다.
 ② : ㉢ ‘우리 아들’은 영수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 ㉡은 모두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③ : ㉣과 ㉤의 ‘저거’는 모두 ‘저 옷 가게 광고판’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④ : ㉠의 ‘오늘’과 ㉡의 ‘어제’는 모두 ‘2015년 12월 30일’의 동일한 날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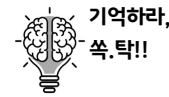
<2015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15. 지칭어와 호칭어 이해 **정답 ②**
(해설)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며, ‘㉡아가씨(지시 대상)’는 엄마(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때, ②의 진술과 같이, 청자는 고모로 동일하고 화자는 할머니와 엄마로 다르다. 그렇지만 ㉠은 고모부를, ㉡은 고모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된 것은 아니다.

[오답의 정체]

- ① :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며, ‘㉡그이’는 고모(화자)가 할머니(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을 다르게 표현함을 알 수 있다.
 ③ :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부’는 고모(화자)가 은미(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④ : ‘㉢그이’는 고모(화자)가 할머니(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부’는 고모(화자)가 은미(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져 동일한

- 인물이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⑤ : ‘㉤아가씨’는 엄마(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모’는 은미(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1. 불일치, 간접
2. 상황적
3. 대응

19강_ 법, 법, 법!



p.125

<2016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

11. 표준 발음법 이해하기 **정답 ④**
(해설) ‘집일’은 제29항에 따라 ‘ㄹ’ 소리가 첨가되고, 제18항에 따라 ‘ㅂ’이 [ㅁ]으로 발음되어 [짐닐]로 발음된다. 따라서 ‘집일’을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8 항, 제29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답의 정체]

- ① ‘덜이다’는 제13항에 따라 [더피다]로 발음되므로,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웃어른’은 제15항에 따라 [우더른]으로 발음되므로, 표준 발음법 제15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굳이’는 제17항에 따라 [구지]로 발음되므로, 표준 발음법 제17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색연필’은 제29 항에 따라 ‘ㄹ’ 소리가 첨가되고, 제18항에 따라 ‘ㄱ’이 [ㅇ]으로 발음되어 [생년필]로 발음되므로, 표준 발음법 제18항, 제29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016학년도 대수능 모평 B형>

11.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 ⑤**
(해설) ‘없지만’을 [언찌만]으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인 ‘ㅈ’을 된소리 [ㅉ]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얇을 수록’은 어간 ‘얇-’과 어미 ‘-을수록’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을 [안출쑥룩]으로 발음하는 것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인 ‘-(으)ㄹ수록’의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ㅈ’을 된소리 [ㅉ]으로 발음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의 정체]

- ① : ‘폼을 적에’를 [푸물찌게]로 발음하는 것은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ㅈ’을 된소리 [ㅉ]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삼고’를 [삼꼬]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인 ‘ㄱ’을 된소리 [ㄱ]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② : ‘넓거든’을 [넙거든]으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을 된소리 [ㄱ]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얇을지라도’는 어간 ‘얇-’과 어미 ‘-을지라도’로 분석되는데, 이것을 [얇블찌라도]로 발음하는 것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인 ‘-(으)ㄹ지라도’의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ㅈ’을 된소리 [ㅉ]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③ : ‘신짚네요’를 [신:켄네요]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인 ‘ㄱ’을 된소리 [ㄱ]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밭지도’를 [밭찌도]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ㅈ’을



된소리 [ㅍ]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 ④ : '비웃을지언정'은 어간 '비웃-'과 어미 '-을지언정'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을 [비웃을씨언정]으로 발음하는 것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인 '-(으)ㄹ지언정'의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ㅍ'을 된소리 [ㅍ]으로 발음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한편, '훈던'을 [훈뉼]으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을 된소리 [ㄷ]으로 발음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2016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

- 12. 한글 맞춤법 적용하기 **정답 ④**
(해설) '귀머거리'는 동사 '귀먹다'의 어간 '귀먹-'에 접미사 '-어리'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로,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 즉,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의 규정을 적용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의 정체]

- ① : '다듬이'는 동사 '다듬다'의 어간 '다듬-'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므로,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 '막개'는 동사 '막다'의 어간 '막-'에 접미사 '-애'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으므로,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 '삼밭이'는 명사 '삼밭'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로,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었으므로,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 '뒹개'는 동사 '뒹다'의 어간 '뒹-'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개'가 붙어서 된 말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었으므로,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2015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B형>

- 12.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 ⑤**
(해설) ⑤의 '일찍이'는 부사 '일찍'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 '일찍이'가 된 것이므로 ㉠의 '더욱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더욱이' 역시 부사 '더욱'에 '-이'가 붙어서 부사 '더욱이'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오답의 정체]

- ① : '급히'는 '급하다'의 어간 '급-'에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므로 ㉠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의 '꾸준히' 역시 '꾸준하다'의 어간 '꾸준-'에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 ② : '방긋이'는 부사 '방긋'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 '방긋이'가 된 것이므로 ㉠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의 '생긋이' 역시 부사 '생긋'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 ③ : '많이'는 '많다'의 어간 '많-'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므로 ㉠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의 '같이' 역시 어간 '같-'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 ④ : '깊이'는 '깊다'의 어간 '깊-'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므로 ㉠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 ㉠의 '굳이' 역시 어간 '굳-'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2015학년도 대수능 B형>

- 13. 한글 맞춤법 적용 **정답 ②**
(해설) 이 문항은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잘못 표기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사례를 고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문항이 주로 규정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파악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여 왔음에 비해, 이 문항은 직접적으로 올바른 표기를 고를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부치다'는 '편지를 부치다'처럼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낸다.'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제시된 용례처럼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겨어 맡기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안건을 회의에 부치다.', '표결에 부치다.', '재판에 부치다.', '투표에 부치다.' 등처럼 쓰인다. '부치다'와 흔히 혼동하기 쉬운 '붙이다'는 대체로 '붙다'의 사용사로 쓰여 '봉투에 우표를 붙이다.', '벽에 메모지를 붙이다.', '연탄에 불을 붙이다.', '계약에 조건을 붙이다.' 등과 같이 쓰인다.

[오답의 정체]

- ① : '어제저녁'의 준말로, '엇저녁'이 아니라 '엇저녁'으로 써야 한다.
- ③ : '적지 않은'의 준말로, '적잖은'이 아니라 '적잖은'으로 써야 한다.
- ④ : 김치의 일종을 뜻하는 말로, '깍뚜기'가 아니라 '깍뚜기'가 바른 표기이다.
- ⑤ : '편편하고 얇으면서 꽤 넓다.'의 의미를 지니는 말로, '넙적하게'가 아니라 '넓적하게'가 바른 표기이다.

<2015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B형>

- 13. 로마자 표기법 **정답 ⑤**
(해설) 이 문항에서는 제시된 ㉠, ㉡, ㉢의 로마자 표기 사례를 통해 로마자 표기의 원칙을 수험생들이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앞집'은 [압집]으로 발음되지만 '장릉[장농]에서와 마찬가지로 'ㄹ'을 'j'로 적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앞집'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ㄹ→[ㅍ])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오답의 정체]

- ① : [가락]을 'garak'으로 적은 사례에서 모음 앞의 'ㄱ'과 어말의 'ㄱ'을 각각 'g'와 'k'로 다르게 적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 '앞'의 'ㅍ'과 '집'의 'ㅂ'을 모두 'p'로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앞'은 [압]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종성을 'p'로 적는 것이다.
- ③ : 장음을 표시하는 별도의 표기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라고 규정하는데, '장릉'은 자음 동화가 일어나 [장농]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jangnong'으로 적는 것이다. 자음 동화는 '음절 끝의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기억하라, **쑥.탁!!**

- 1. 소리, 어법
- 2. 조사, 의존 명사
- 3. 파이팅
- 4. Jongno

20강_ 생각보다 쉬운 국어의 역사



기출~ 탁!

p.132

- <2015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B형>
 16.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 ②**
(해설) 중세 국어 '업던'과 현대 국어 '업던'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방식인 이어 적기(연철, 連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오답의 정체]

- ① ‘ㄷ’이 ‘ㅣ’ 모음 앞에서 ‘ㅅ’으로 변하지 않고 ‘모던’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 중세 국어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하늘하’에는 ‘ㄷ’이 쓰였는데 이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모음이다. 일반적으로 음소로서의 ‘ㄷ’은 18세기에 거의 소실된 것으로 파악된다.
- ④ 중세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 ‘ㅏ’와 음성 모음 ‘ㅑ’가 어울려 ‘모새’였던 것이 현대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 ‘ㅏ’와 음성 모음 ‘ㅑ’가 어울려 ‘뫼에’가 된 것으로 보아 현대 국어에 비해 중세 국어에서는 상대적으로 모음조화가 잘 지켜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⑤ ‘열쁜’에는 ‘ㅍ’ (ㅍ순경음)이 쓰였는데 이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자음이다. ‘ㅍ’은 15세기 중반부터 반모음으로 바뀌기 시작하여 현대 국어 ‘고와, 구워’의 사례에서처럼 ‘ㅍ’이 [w]로 변하여 이중 모음을 형성한 사례가 일부 확인된다.

<2016학년도 대수능 B형>

16.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정답 ②**

[해설] 현대 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중세 국어의 문법적, 표기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仙人(선인)이와 ㉡ ‘蓮花(연화)’의 현대어 풀이가 ‘선인’이와 ‘연꽃이’임을 고려할 때, ‘이’와 ‘ㅣ’는 모두 주격 조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격 조사의 종류가 달라서’라는 ㉡의 기술은 타당하지 않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체언의 끝소리 종류에 따라 형태가 달리 실현되었는데, ‘선인’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어서 ‘이’가, ‘연화’는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어서 ‘ㅣ’가 결합한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체언이 ‘ㅣ’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주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는다.

[오답의 정체]

- ① : 현대어 풀이가 ‘대사 하신 일’임을 고려할 때 ㉠의 ‘ᄒᆞᆫ산’에는 주체 존대 선어말 어미 ‘-사’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 현대어 풀이가 ‘남굴의 선인’임을 고려할 때 ㉠ ‘남굴ᄒᆞᆫ선인’의 ‘-사’이 현대 국어 관형격 조사 ‘의’에 대응됨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 ㉠과 ㉡에 쓰인 부사격 조사는 현대 국어로는 모두 ‘에’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세간’에와 ‘시절’에로 달리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말의 끝 모음 ‘ㅏ’, ‘ㅑ’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모음조화에 따른 결과이다.
- ⑤ : ㉠ ‘쉽디’는 현대 국어에서는 ‘쉽지’로 실현되는데, ‘ㄷ → ㅅ’의 구개음화에 따른 결과이다.

<2015학년도 대수능 6월 모평 B형>

16.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정답 ①**

[해설] 이 문항은 <보기 1>에 제시된 설명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의 특징을 파악하여 <보기 2>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①이다. 먼저, ㉠의 ‘아들’은 높임의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ㅅ’가 양성 모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로 ‘이’를 취해야 한다. 이때, ‘ㅅ’가 양성 모음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기 1>의 (예) 중에서 첫 번째에 제시한 ‘눔’에 관형격 조사 ‘이’가 결합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현대어 풀이를 통해 볼 때 ㉠의 ‘술위’는 현대 국어 ‘수레’에 해당하는데, 이는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끝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형격 조사 ‘ㅅ’을 취해야 한다. <보기 1>의 (예) 중에서 네 번째에 제시한 ‘나모(나무)’가 ‘ㅅ’을 관형격 조사로 취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2015학년도 대수능 B형>

14.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파악 **정답 ③**

[해설] 이 문항은 한글의 제자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학생들의 설명이 어떤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분류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학생3’은 한글의 자음자에서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사소리>-<거센소리>의 관계를 <A>-<A>에 획 추가로 표현한 것을 통해 ‘나’의 ‘가획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사소리>-<된소리>는 <A>-<AA>로 표현한 것을 통해 ‘다’의 ‘초성자를 나란히 써서 또 다른 초성자로 사용하였다.’라는 ‘병서(竝書)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ㄱ-ㅋ-ㆁ’에서 거센소리 ‘ㅋ’은 예사소리 ‘ㄱ’에 가획하여 만든 글자이고, 된소리 ‘ㆁ’은 ‘ㄱ’을 나란히 이어 써서 만든 글자이다.

[오답의 정체]

- ‘학생 1’은 자음자 중 ‘ㄱ’이 어떠한 모습을 형성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가’의 ‘상형의 원리’에 해당한다. ‘가’에서 초성자와 중성자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초성의 기본자 ‘ㄱ, ㄴ, ㄹ, ㅁ, ㅂ, ㅅ, ㅇ’과 중성의 기본자 ‘ㅏ, ㅑ, ㅣ’는 각각 발음 기관과 천지인(天地人)을 상형하여 만든 글자이다.
- ‘학생 2’는 ‘ㅏ, ㅑ, ㅣ’의 기본자를 바탕으로 모든 모음자를 현대 전화 자판으로 입력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라’의 중성자의 제자 원리에 해당한다. 모음자라 불리는 중성자는 기본자 ‘ㅏ, ㅑ, ㅣ’를 바탕으로 ‘ㅓ’와 ‘ㅕ’를 합성하여 ‘ㅗ, ㅛ’를 만들고, ‘ㅣ’와 ‘ㅏ’를 합성하여 ‘ㅓ, ㅕ’를 만들었다. 여기에 다시 ‘ㅏ’를 하나씩 더해 ‘ㅗ, ㅛ, ㅜ, ㅠ, ㅡ, ㅝ’를 만들어 모두 11자의 중성자(모음자)를 완성한 것이다.
- ‘학생 4’는 ‘ㅍ’에 획을 더해 만든 자음자 ‘ㅍ, ㅍ’은 모두 ‘ㅍ’ 모양을 공통적으로 지니며, 이것은 ‘ㅍ, ㅍ, ㅍ’의 공통된 소리 특징을 반영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의 ‘가획의 원리’가 반영되었다.
- ‘학생 5’는 중성자, 즉 받침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이 점은 한글이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특징 중 하나이지만 제시된 제자 원리 중에는 이 점에 대한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2017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11.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 ②**

[해설] 이 문항은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의 특징을 <대화 1>, <대화 2>와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해 낼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자료>를 통해 볼 때, 15세기 국어의 ‘도박’이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난 것은 ‘ㅍ’이 ‘ㅏ’ 앞에서 반모음 [w]로 바뀐 결과이다. 따라서 ‘ㅍ’이 어간 끝에서 ‘ㅍ’으로 바뀌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오답의 정체]

- ① : <대화 1>의 내용에서 현대 국어의 ‘뚱다’는 ‘뚱고’, ‘도와’로 활용하고, 현대 국어의 ‘젓다’는 ‘젓고’, ‘저어’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뚱다’, ‘젓다’는 <대화 2>의 ‘굽다’, ‘짓다’와 마찬가지로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임을 알 수 있다.
- ③ : <자료>에서 15세기 국어의 ‘젓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이 ‘젓-’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화 2>에서 ‘ㅏ’가 사라지면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다고 하였으므로,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난 것은 ‘ㅏ’의 소실로 어간의 끝 ‘ㅏ’가 없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 ④ : <자료>에서 15세기 국어의 ‘뚱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이 ‘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현대 국어에서도 ‘뚱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뚱-’으로 나타나므로 이 둘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⑤ : <자료>에서 15세기 국어의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이 '젓-'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현대 국어에서도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젓-'으로 나타나므로 이 둘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 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2. 중세, 근대 국어에 대한 이해

정답 ①

(해설) 이 문항은 주어진 탐구 활동과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곱다'는 '돕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ㄹ 불규칙 활용)이 유사하다. 15세기 중엽에 '돕-'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뉘-'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뉘-'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곱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곱게, 고편'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 서며 'ㅍ' 앞에서 반모음 '~ㄱ'로, '~' 앞에서 'ㄱ'로 바뀌었으며, '~'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ㄱ'로 바뀌었으므로, 17세기 초엽에는 '곱게, 곶와, 곶온'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오답의 정체]

- ② : '긷다'는 '젓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ㄹ 불규칙 활용)이 유사하다. 15세기 중엽에 '젓-'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젓-'으로, 모음으로 시작 하는 어미 앞에서 '젓-'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긷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긷게, 그서, 그슨'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ㄷ'은 16세기 중엽에 사라졌으므로, 17세기 초엽에는 '긷게, 그어, 그온'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 ③ : '늣다'는 '돕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ㄹ 불규칙 활용)이 유

사하다. 15세기 중엽에 '뉘-'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뉘-'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뉘-'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늣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늣게, 누벼, 누븐'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며 'ㅍ' 앞에서 반모음 '~ㄱ'로, '~' 앞에서 'ㄱ'로 바뀌었으며, '~'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ㄱ'로 바뀌었으므로, 17세기 초엽에는 '늣게, 누워, 누운'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 ④ : '빋다'는 '좁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규칙 활용)이 유사하다. 15세기 중엽에 '좁-'은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모두 어간이 '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빋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빋게, 비서, 비슨'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16세기 중엽에 음절 끝에서 이 전과 다름없이 'ㅅ'이 나타났으므로, 17세기 초엽에도 '빋게, 비서, 비슨'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 ⑤ : '잡다'는 '좁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규칙 활용)이 유사하다. 15세기 중엽에 '좁-'은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모두 어간이 '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잡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잡게, 자바, 자븐'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17세기 초엽 역시 '잡게, 자바, 자븐'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기억하라,
쑥.탁!!

1. 방점, 성조
2. 모음조화, 나는
3. 이어 적기
4. 이, 가
5. 상형, 가획, 상형, 합음